

‘최대 수십조’ 제2중동붐 시동… 초대형 프로젝트 물꼬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방한 맞춰
韓·사우디 정부·기업 투자포럼
에쓰오일 등 25건 계약 MOU 체결
사한·네움시티 등 '조 단위' 수주록



울산 2단계 석유화학 사업(사한 프로젝트)을 추진하는 에쓰오일이 국내 건설사 3곳(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롯데건설)과 체결한 설계·조달·시공(EPC) 계약은 단일 사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로 꼽힌다.

한국의 주요 기업과 사우디 정부·기관·기업이 최대 수십조원에 이를 각종 초대형 프로젝트 협력에 동시다발로 시동을 걸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우디 투자부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사우디 투자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의 주요 기업과 사우디 정부·기관·기업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총 26건의 계약·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가운데 6건은 한국 민간 기업과 사우디 투자부 간, 17건은 공기업이 포함된 한국 기업과 사우디 기관·기업 간, 3건은 사우디가 투자한 기업(에쓰오일)과 국내 건설사들 사이에 맺어진 것이다.

각 협약의 예정된 사업비만 조 단위에 달하는 대규모 협력 프로젝트로 모두 합하면 최대 수십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방한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을 마친 뒤 오찬을 함께 하고 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에쓰오일의 대주주인 사우디 국영기업 아람코의 대주주다. 사한(아랍어로 매라는 뜻) 프로젝트는 70억달러(약 9조3천억원)를 들여 울산에 스티크래커와 올레핀 다운스트림 시설을 구축하는 초대형 사업으로 왕세자 방한에 맞춰 투자를 공식화했다.

사우디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네움시티' 프로젝트에도 우리 기업들이 사우디 정부·기업과 잇달아 계약과 MOU를 맺었다.

네움시티는 빈 살만 왕세자가 2017년 석유 중심의 경제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발표한 초대형 신도시 사업이자 국가 장기 프로젝트(사우디 비전 2030)다. 사업비 5천억달러(약 640조원)를 들여 사우디 반도와 이집트 사이 아카바만 동쪽에 건설되는 첨단 미래 신도시다.

한국전력·한국남부발전·한국석유공사·포스코·삼성물산은 사우디 국부펀드(PIF)와 예정 사업비가 65억달러(약 8조5천억원)에 달하는 그린 수소·암모니아 공

장 건설 프로젝트 MOU를 체결했다. 이와는 별도로 삼성물산은 PIF와 네움 시티에 철강 모듈러 방식으로 임직원 숙소 1만 가구를 짓는 '네움 베타 커뮤니티' 프로젝트 관련 MOU를, 한전은 사우디 민간발전업체 ACWA파워와 그린 수소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의 협력 약정을 각각 맺었다.

현대로템은 사우디 철도청에서 추진하는 2조5천억원 규모의 네움 철도 협력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사우디 고속철 사업을 따낼 경우 한국 고속철의 첫 수출 사례가 된다.

이 밖에 화학(롯데정밀화학), 합성유(DL케미칼), 제약(지엘라파), 게임(시프트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과 사우디 투자부가, 스마트시티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인 와이디엔에스와 사우디 데이터인공 지능처와의 MOU가 각각 체결됐다.

롯데정밀화학은 사우디 현지에 정밀 화학 생산 거점을 구축할 계획이다. 사우디 투자부는 고부가 산업 유치를 위해 대

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DL케미칼은 사우디 내 폴리부텐 공장 설립에 앞서 사업성 등을 평가하고, 사우디 투자부는 이에 필요한 정부기관·기업들로부터의 협력을 이끌어 낸다는 내용으로 MOU를 맺었다.

이와 같은 양국 협력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한국은 1970년대 건설업 주도로 일어난 중동 특수에 필적하는 대규모 해외 사업을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年 150억’ 남산터널 통행료 26년만에 폐지되나

고광민 시의원, 폐지 조례안 발의
“통행감소 효과 없고 정당성 부족”

남산터널 혼잡 통행료가 26년만에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서초3)은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의 근거가 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폐지조례안 시행 1년 뒤부터 통행료 징수를 중단하는 내용의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1996년 혼잡통행료 징수 조

례를 제정된 뒤 남산 1·3호 터널과 연결 도로 일부를 교통혼잡지역으로 지정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왕래하는 차량(2인 이하 사람이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승합 차량)에 대해 2천원의 통행료를 부과했다.

혼잡통행료로 걷히는 수입은 연평균 150억원 정도다.

시는 혼잡통행료 징수 근거로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41조와 43조에 한양도성 내 혼잡통행료 부과가 강제조항으로 명시돼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교통혼잡 완화 차원에서 통행 수단과 경로 시간 등의 변경을 유도하기 위해 요금 징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고 의원은 혼잡통행료 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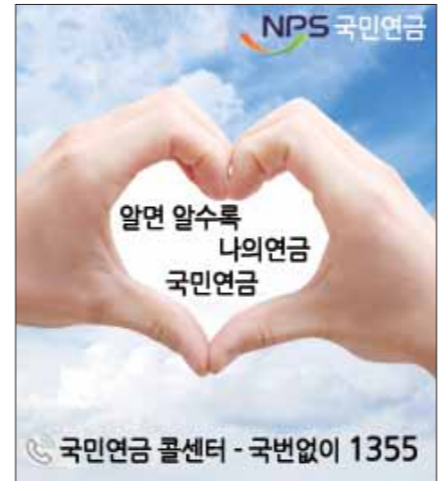
로 남산터널 통행량이 감소했다는 시 주장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이종과세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징수 초기와 비교해 혼잡통행료 효과가 현저히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발표됐고 한양도성 내부로 진입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나가는 차량도 통행료를 징수하는 이종과세 문제, 타 지역에서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과의 형평성 문제 등 징수 정당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산요금소가 옛날 산길에서 길목을 막고 통행세를 받으며 나그네들의 주머니를 털던 소위 '산적' 같다는 인상을 받는다”며 “추후 관련 연구용역, 토론회 등

을 통해 더욱 면밀한 검토를 거쳐 통행료 폐지의 정당성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임형찬기자 himhc@jeonmae.co.kr



오늘부터 경기 광역버스 입석 중단

국토부·서울시·경기도 대책 마련
정규버스·전세버스 등 추가 투입

경기 광역버스 입석이 18일부터 중단돼 정부가 버스를 추가 투입키로 했다.

KD운송그룹은 경기지역 14개 버스업체가 18일부터 광역버스 입석 승차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KD운송그룹 노동조합의 입석 승차 중단 선언에 따른 수도권 출퇴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경기도와 긴급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일단 올해 계획한 정규버스와 전세버스 증차 물량을 앞당겨 투입하기로 했다.

이달 안으로 광고~서울역, 동탄2~판교역 등 노선에 정규버스 12대와 예비차 3대를 추가 투입한다.

또 올해 안에 22개 노선에 버스 46대를 투입하고 내년 초까지는 18개 노선에 37대를 추가로 증차한다.

이들 좌석 공급량으로 환산하면 이달 안에 출퇴근 시간대 좌석을 1천500석, 연말까지는 2천300석 늘릴 수 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서울시 광역버스 중 KD운송그룹에서 운영하는 노선과 비슷해 대체 효과가 있는 10개 노선에 대해서는 버스 9대를 증차할 계획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승객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 버스정보 앱과 정류소에는 대체 노선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영민기자 han YM@jeonmae.co.kr

Everywhere Green Life, H₂ KOGAS
KOGAS가 만들어가는 Fill · Feel · 必

KOGAS가 FILL합니다

당신과 함께할 H₂U 를 가득 채웁니다.

KOGAS가 수소경제와 에너지 대전환의 선두주자가 되어
우리 일상을 깨끗한 에너지로 가득 채우겠습니다.

H₂U 는 수소사업에 대한 도전과 열정을 담은 한국가스공사의 새로운 브랜드입니다.

단신브리핑

‘경기도무형문화재 대축제’ 18~20일에

경기도가 18일부터 20일까지 성남아트리움에서 경기도무형문화재 68개 종목을 대중에 공개하는 ‘2022 경기도 무형문화재 대축제’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천년의 인고, 인간문화재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총 68개 종목 중 사기장(정화백자), 방자유기장 등 기능 분야 40개 종목의 장인들이 제작한 작품 130여 점 전시와 경기소리(휘몰이잡기), 시흥군자봉성황제 등 예능 분야 28개 종목의 전통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공개행사는 경기도 무형문화재를 이해하고 전통의 의미를 나누는 뜻깊은 행사”라며 “경기도 전통문화의 깊이를 느끼고 천년의 자랑으로 송고한 맥을 이어온 경기문화의 우수성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영민기자 han-ym@jeonmae.co.kr

연무동 일원 4개소에 ‘스마트 파고라’ 설치

경기 수원시가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되는 연무동 일원 4개소에 ‘스마트 파고라’를 설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곳에는 의자와 테이블, 태양광을 이용한 무선 충전기, 온도·대기질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갖췄다. 미세먼지 감지 센서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공기청정시스템을 가동하며 IoT(사물인터넷) 시스템으로 원격 관리할 수 있다. 시는 MP(총괄기획) 수원도시재단,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등과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수원천변길(2개소)과 쪽박산 어린이공원(2개소)에 스마트 파고라를 설치했다. 쪽박산 어린이공원 인접 스마트 파고라 내에는 운동 기구가 설치되어 대기질이 나쁜 날에도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운동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스마트 파고라가 연무동 주민뿐 아니라 연무동을 방문하는 모든 시민이 쓸 수 있는 휴게 공간이 되도록 잘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수원/박선기기자 sspark@jeonmae.co.kr

2023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충북 청주시는 21일부터 25일까지 ‘2023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저소득 실직·휴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 제공에 생계를 돕는 것으로 하는 일은 환경정비와 불법광고물 정비, 행정사무 보조 등이다.

모집인원은 총 300명(일반 200, 청년 40)이며 근무기간은 일반 내년 1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청년 1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신청대상은 만 18세 이상 청주시민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주민등록 세대 기준 재산(토지, 건물, 주택, 자동차 등)이 4억원 이하인 자다.

희망자는 동지역의 경우 주소지 관할 구청 산업교통과, 읍·면 거주자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은 가구소득, 재산상황 등 적격 여부를 거쳐 12월 말 통보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시 일자리정책과(☎043-201-1373), 각 구청 산업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청주/양혜기기자 ckyang5@jeonmae.co.kr

경북도가 지방시대와 메타버스, 신공항 건설 등에 더 힘을 쏟기 위해 조직을 개편한다.

17일 도에 따르면 민선 8기 현안 수요를 반영하고 행정 여건 변화에 따라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핵심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시대 주도, 메타버스 및 과학 첨단산업 수요 대응,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등이다.

이를 위해 지방시대정책국과 메타버스과학국, 경제산업국, 통합신공항추진본부를 신설한다. 기존 일자리경제실과 과학산업국, 아이여성행복국은 폐지하고 기능을 신설 조

직 등으로 이관한다. 신설되는 지방시대정책국은 광역행정, 균형 정책, 지방분권 및 지속 가능한 발전, 인구정책 및 지방소멸 대응, 청년정책, 청년

조직개편 단행...첨단과학 산업 육성 보차 통합신공항추진본부도 설치...조례 개정안 일자리경제실·아이여성행복국 등 폐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막아라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된 경기도 화성시의 한 육용종계 농장에서 17일 오후 관계자들이 출입하는 차량 소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8기영기

경남도,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021원 확정

올해보다 3% 인상... 최저임금보다 1410원 많아
국비지원 노동자까지 생활임금 적용 확대...살의 질 향상

경남도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021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시급인 1만700원보다 3% 인상된 금액이고 2023년 법정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1401원(14.6%) 높은 수준이다.

도는 내년 생활임금 적용대상자가 법정 노동시간인 200시간을 근무하면 한 달에 200만3389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도는 2020년 처음 생활임금을 도입한 이후 매년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

다음 연도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생활임금위원회에는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출자출연 기관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이 참여해 생활임금을 정한다.

특히 이번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생활임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국비지원 노동자’도 내년부터 확대 적용하기로 해 노동자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결정으로 공무원 보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도 본청

및 직속 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노동자와 출자 출연 소속 노동자 등 900여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에 생활임금 지급 대상으로 확대 적용된 국비지원 노동자는 국비지원 임금과 생활임금 차액을 보전받게 된다.

최방남 경남도 노사상생과장은 “내년도 생활임금은 수혜대상자가 확대된 만큼 더 많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노동이 존중받는 경남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청원/김현준기자 kimhj@jeonmae.co.kr

일자리 및 청년문화복지, 교육정책, 대학, 외국인 정책 및 다문화가정 등 사무를 담당한다.

메타버스과학국은 디지털 및 메타버스 정책, 과학기술정책 및 미래성장산업 육성, ICT 융합산업 육성, 데이터 및 통계분석, 정보정책 등 업무를 맡는다. 경제산업국에는 폐지되는 일자리경제실 업무와 과학산업국 일부 사무를 배정한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는 기존 통합신공항추진단을 확대·승격한다. 공항 정책, 신공항

이전, 보상지원 및 항공산업, 공항신도시 조성, 이전 주변 지원사업 및 공항교통 정책을 맡는다. 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은 3급 1명 등 2명이 증가하게 된다.

도는 이러한 내용의 행정기구 설치와 공무원 정원 관련 조례 개정안을 각각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도는 의견 수렴이 끝나면 다음 달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해 내년 1월 새로운 조직을 출범할 계획이다.

경북/신용대기자 shind@jeonmae.co.kr

성남시민 건강권 강화 발굴·토론 전문가 의견 공공의료정책에 반영

경기 성남시가 시민의 건강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발굴하고 토론하는 소통과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했다.

시는 오는 22일 ‘스마트 기술 기반의 의료서비스 활용방안’을 주제로 한 공공의료

포럼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성남시공공의료위원회 주관으로 이날 포럼은 공공의료서비스 현장에 참가주도

적 인공기능 건강관리서비스 등의 디지털 혁신 기술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다.

포럼 좌장은 최영진 을지대학교 의료경영학과 교수가 맡아 3명의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이규혁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

과 교수가 주제발표로 나와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한 스마트 의료’에 대해 주제 발표한다. 주정화 송파구보건소 건강증진실무자는 데이터 기반의 건강관리 서비스인 ‘스마트 주치의’ 사업을 소개한다.

포럼은 내이비 클라스트 헬스케어 총괄이사인 ‘글카우드’ 기반의 의로서비스 전환과 전

망’을 주제 발표한다.

이해 해당 분야 전문가 4명이 패널로 나와 집중 토론을 벌여 참여자들과 질의응답 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시는 이날 나온 의견을 모아 시 공공의료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일영기자 lee1y@jeonmae.co.kr

세종시, 지역혁신 선도기업에 관내 4곳 선정

캠제약·솔라에스티 등 추가 선정
기술개발 자금·관료·인력지원

세종시는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출범식’에 관내기업 4곳이 참여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역주력산업 생태계를 견인하는 혁신 역량과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집중 육성해 지역산업·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시는 지난 3월 (주)캠제약, (주)아이티코리아 2곳을 1차 선정했으며, 최근 한국바이오컴퓨터(주)솔라에스티 등 2곳을 2차 선정해 총 4곳의 기업에 대해 지원에 나선다.

선정 기업은 최대 6년(3+3년)간 기술개발

및 관료·인력·자금·투자 등 매뉴얼식 지역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는 개별 협업과제에 따라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2차로 선정된 한국바이오컴퓨터(주)솔라에스티 등 2곳의 관내 기업을 포함한 기업 47곳이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됐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비수도권 14개 시도, 지원기간 간 선도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준배 경제부시장은 “미래전략수도 세종을 완성하기 위해 지역혁신 선도기업이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이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유영준기자 yjyoo@jeonmae.co.kr

정원이자면, 만족할 만두 하지

HOME:ings 호밍스

집만두김치두부, 집만두고기부추, 집만두백김치, 바삭만두고기, 바삭만두고추

청정원 DAESANG

“올해 수능 예년 출제기조 유지... 선택과목 유불리 최소화”

박윤봉 출제위원장 “EBS 체감연계도 올리고자 노력... 졸업생 비율도 고려” 작년 ‘출제오류’ 고려해 고난도 문항 검토기간 절차·자문위원 대폭 강화

2023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인 박윤봉 충남대 교수는 올해 수능에서 예년 출제 기조를 유지했으며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현상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수능 출제 방향 브리핑에서 “학교에서 얼마나 충실히 학습했는지 평가하기 위해 고교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함으로써 고교 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며 “올해 2차례 시행된 모의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예년 출제기조를 유지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능 난도가 지나치게 높았다는 지적에 대해 박 위원장은 “작년부터 EBS 연계율 비중이 축소된 부분이 ‘불수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판단했다”

며 “이번에는 ‘체감 연계도’를 올리는 데 노력했다”고 말했다.

EBS와 동일한 지문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지문이 담고 있는 소재나 내용이 유사해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택했다는 게 박 위원장의 설명이다.

올해 수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진다.

수험생들은 국어와 수학영역에서 공통 과목과 선택과목을 치르게 되는데 작년 수능에서는 선택과목별로 받을 수 있는 표준점수 최고점이 달라 유불리 문제가 제기됐다. 박 위원장은 “선택과목이 있는 영역에서는 과목별 난이도의 균형이 이뤄지도록 출제해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사실

이 문제(선택과목별 유불리 현상)를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공통과목에 응시하는 점수를 활용해서 선택과목 점수를 조정, 전체 점수(영역 점수)를 산출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상태에서는 그나마 유불리 문제를 최소화할 방안”이라고 말했다.

졸업생 비율이 늘어난 점도 출제에 고려했다. 올해 수능에서 졸업생과 검정고시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31.1%로 26년 만에 가장 높다. 박 위원장은 “졸업생의 경우 1년 더 준비하는 기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준비가 된 학생들”이라며 “상위권 비율을 그 학생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모의평가를 분석해 졸업생 비율에 맞춰 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규민 원장은 “6월과 9월 모의평가 때 재수생들 비율과 수행 정도를 평가해서 최종적으로 수능에 재수생들이 어느 정도 있으면, 어느 정도 난이도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가능하다”며 “그 수준에 맞춰 문



박윤봉 대학수학능력시험출제위원장(충남대 교수)가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방향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문성 수능검토위원장(경인대 교수),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박윤봉 수능 출제위원장. 연합뉴스/김우영기자

제를 출제하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출제오류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출제 검토기간과 자문위원도 강화했다. 이규민 원장은 “작년에 출제 오류로 국민들께 크게 심려를 끼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런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출제 총 기간을 이틀 더 늘렸다”고 말했다.

이어 “고난도 문항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특별히

점검하는 절차를 추가로 넣었다”며 “조반에 안정된 문항이라고 보고 검토과정에서 누락될 수 있는 ‘조기 안착 문항’의 검토와 정도 추가했다”고 강조했다.

박윤봉 수능 출제위원장 pms5622@jeonmae.co.kr

서울 아파트값 25주째 추락...역대 최대 낙폭

지난주 규제 풀린 경기·인천도 하락폭, 수도권-전국 매매-전세역대최대하락행진

금리 인상, 거래 절벽 속에 이번주 전국 수도권·서울 아파트값이 또다시 역대 최대 하락폭을 경신했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0.38%) 대비 0.47% 하락했다.

25주 연속 하락이면서 2012년 5월 부동산원이 시세 조사를 시작한 이후 2주 연속으로 최대 하락 기록을 갱신했다.

전국, 수도권 아파트값도 각각 0.47%, 0.57% 떨어져 지난주(-0.39%, -0.47%)의 역대 최대 하락폭을 경신했다.

노원구 아파트값은 낙폭이 지난주 -0.55%에서 금주 -0.74%까지 커졌고, 도봉(-0.67%)·강북(-0.63%) 등 ‘노도강’ 지역의 하락이 거셌다.

지난주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를 제외하고 규제지역에서 풀린 경

기도(-0.59%)와 인천(-0.79%)도 지난주(-0.49%, -0.60%)보다 낙폭이 확대됐다.

경기도 시흥시는 지난주 -0.58%에서 이번주 -0.71%로 낙폭이 확대됐고, 남양주시는 -0.69%에서 -0.79%로, 고양시는 -0.46%에서 -0.61%로 낙폭이 커졌다.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서 빠진 과천(-0.83%), 성남 분당구(-0.53%), 하남(-0.57%), 광명시(-0.95%)는 성남 수정구(-0.63%)를 제외하고 지난주보다 하락폭이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 시장도 신규 물건이 적체되며 낙폭이 확대되고 있다.

이번주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지난주(-0.48%)보다 커진 0.59% 하락해 부동산원 시세 조사 이래 10년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경기(-0.73%)와 인천(-0.85%)도 지난주보다 낙폭이 커지면서 수도권(-0.70%)과 전국(-0.53%) 기준으로도 역대 최대 하락세가 이어졌다.

홍상수기자 HongSS@jeonmae.co.kr

“주택시장 안정 위해 품질 향상 공공주택 지역별로 더 고르게 많이 지어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품질이 향상된 공공주택이 지역별로 더 고르게 많이 지어져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더 많은, 더 나은, 더 고른 공공주택이 필요한 시대’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원은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은 늘었지만 공급자 중심의 공급으로 인해 지역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특정 지역에 공급이 집중된 상황으로 경기도는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공급이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0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내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과 청년층이, 공공분양주택은 30대와 중소득층이 각각 주요 소비층이다. 무주택 저소득층의 약 76%(74.5만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의사가 있으며 중소득층에서

도 약 71%(56.3만 가구)가 입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분양주택은 무주택 중소득층 중 36.7%(29만 가구), 저소득층 22.8%(22만 가구)가 공급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도내 공공임대주택 재고량(국토교

경기연구원 ‘더 많은, 더 나은, 더 고른 공공주택이 필요한 시대’ 발간 공공임대주택 재고 많아졌지만 여전히 지역별 수요 충족시키지 못해 “경기도, 부담가능한 금액서 공공임대주택 중심 공급하는 역할 맡아야”

통부 주택건설실적)은 2007년에는 123만 호, 2015년에는 30.9만 호 수준이었으며 2020년에는 약 50만 호 수준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넘는 초과 수요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여 지난 6월 공공임대주택 중 하나인 수원영동 경기행복주택 청약에서 최대 128:1의 높은 경쟁률이 나타나는 등 상당수 지역에서 여전히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연구원은 주거 안정성 향상을

위한 도 공공주택 공급정책 시행 전략만 호, 2015년에는 30.9만 호 수준이었으며 2020년에는 약 50만 호 수준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넘는 초과 수요가 지역별로 큰 차이를

자명부 도입을 통해 배분 방식 혁신, 비영리 민간 주체를 통해 공공주택의 역할을 대신하는 주택이 공급되는 환경 조성,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적정 수준의 공공주택 공급, 주택가격의 급등과 급락을 완화하는 공공주택시장 구성을 제안했다.

박동하 연구원은 “공공주택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 목표가 되기보다 주거 취약 가구의 조달 가능 금액으로 공급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공공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공공주택을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생활 인프라 등을 적절히 결합하고 공공주택 거주민이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가 제도적 토대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보다 나은 농어촌

농지 지가 있다면

농어업 금이 있습니다

농지 금 바로 가입해야 할

농어업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

농림축산식품부 **krf** 한국농어촌공사 **fb** 농지은행·농지연금

이재명 조여오는 檢수사에 與 “사필귀정” 野 “야당 탄압”

여야는 17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을 두고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몸통론'을 재점화하며 파상 공세를 퍼부었고, 민주당은 일련의 검찰 수사가 정권 차원의 '야당 탄압'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양급의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정진상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방탄용 의회 독재"라는 전대미문의 정치사, 정당사를 써가는 민주당의 폭주는 놀랍다"면서 "이 대표 복심인 정진상 씨가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되기 훨씬 전에 민주당과 무관하게 저지른 범죄 혐의도 수사를 받고 있는데, 공당의 의원들이 집단으로 정진상 방탄까지 자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성일중 정책위의장은 오전 당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를 주장했던 이 대표를 향해 "남의 슬픔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패륜적 정치 그만하길 바란다"며 "대장동들이 국민의힘 게이트이고 윤석열 후보가 몸통이라고 뻔뻔하게 주장 하였던 분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 공동위원장이 박병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야당에 대한) 탄압으로 보고 있고, 검찰은 무조건 사법처리하는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수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이 인터넷 백과사전인 '나무위키'를 베껴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는 보도 자료를 통해 "정 실장은 과거 이재명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한 적이 있는데, 영장에 기초적인 사실 관계조차 틀린 정보가 적시됐다"면서 "공교롭게도 나무위키에 같은 내용이나 오는데, (정 실장과 이 대표가) 정치공동체라는 결론에 끼워 맞추려 인용했다"고 주장했다.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노웅래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한동훈 검찰이 실시한 저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단지 야당 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뤄진 정치보복 수사, 기획·공작수사"라고 반발했다. 노 의원은 또 "군사작전 하듯이 압수수색 들어온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 일뿐더러 정당한 입법부 활동을 막고자 하는 검찰발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홍상수기자 HongSS@jeonmae.co.kr

與 “민주당, 정진상 방탄까지 자처” 野 “검찰, 그림 그려놓고 맞춰서 수사”

여야 ‘예산 전쟁’ ... ‘사수’·‘칼질’ 대치 격화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 국회'의 파열음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가동에 들어간 가운데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등의 '전면 삭감'에 나선 더불어민주당과, '거대 야당의 독주'라고 반발하며 원상 복구를 추진하는 국민의힘 간 충돌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이날 오전 현재 총 17개 상임위 중 문화체육관광위·국방위 등 10곳이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쳤다. 아직 예비심사가 진행 중인 7곳을 포함해 각 상임위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 및 전체회의 단계에서 여야는 정쟁 예산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토교통위 예결소위는 전날 용산공원 조성사업에 드는 예산 303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예산안 수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문체위는 지난 11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역사 연구'(6억원), '청와대 활용 K-뮤직확산'(6억원), '청와대 사람채 개보수 및 안내센터 운영'(40억원), 문화재청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관련 사업'(7억5천만원) 등 59억5천만원을 삭감한 예산을 의결했다. 대통령실 예산을 다루는 국회 운영위 예결소위에서도 대통령실 이전 관리 예산 일부(29억6천만원)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위 예결소위는 지난 10일 경찰국 예산(경비 2억9000만원·인건비 3억9400만원) 전액을 깎았다. 사퇴론에 휩싸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업무추진비도 1억원 삭감됐다. 기획재정부 소관 영빈관 신축 관련 예

상임위 10곳 예비심사 완료...尹공약 관련 예산 삭감규모 1천억원 넘을 듯 예산안조정소위서 與 “삭감 예산 원상 복구” vs 野 “혈세 낭비 예산 삭감”

산(497억원) 등을 포함하면 대통령실 이전 등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관련한 예산의 총 삭감 규모는 1천억원을 넘을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대신 민주당은 정책위 차원의 '10대 증액 사업' 관련 예산 약 5조4천946억원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용산공원 조성사업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국토교통위에서는 민주당이 주장해 온 다구매입임대(2조5천723억)·전세임대용주(1조208억) 및 대통령 세종 집무실 예산과 국회 이전 예산 등이 포함됐다.

여기위에서도 스토킹 피해자 지원(12억3천900만원), 다문화 가족 지원 가족센터 운영 예산(92억9천100만원) 증액 등 민주당 주장이 반영됐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측은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단계에서 삭감된 예산을 최대한 원상복구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7일 외교통일위 예결소위에서는 민주당이 외교부 장관의 영빈관 설치 예산(21억7400만원)을 삭감했지만, 뒤이어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윤재옥

위원장이 의결을 유보하면서 외교부 원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상호 비방전도 거칠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에서 "예산 칼질"을 통한 대선 불복이 도를 넘고 있다"며 "국민 뜻에 따라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이상 못나 부리지 말고 새 정부 성공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답게 대통령실 눈치를 보지 말고 야당이 요구하는 민생예산 대폭 증액과 함께 초부처 감세 저지와 혈세 낭비 예산 삭감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이태원 참사 국조 추구를 위해 국회 의정실을 예방한 민주당 중진 의원들을 면담하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상호·김상희 의원, 김의강, 안민석·이인영·윤호중 의원. 연합뉴스/이성호기자

野, 국조특위 인선 착수로 與 압박 수위 견인

박홍근 “특위위원장 간사우선 내정”...중진들, 김의장 만나 협조 촉구 ‘정진상 檢수사’에 당 총력 대응 기조...‘이재명 리스크’ 우려도 계속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위한 실무 준비에 돌입하며 대야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 국정조사 특위 위원 인선을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국정조사 야당 단독 실시의 '키'를 쥐고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설득전을 병행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주중으로 특위 구성을 확정해야 내주 초 조사계획서를 마련,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며 "국정조사 특위 구성이 테드라인에 거의 왔다. 국회의장은 오늘 중 특위 구성 방침을 공식 천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여야 합의 창구는 마지막까지 열어도 좋으나 시간이 없다. 민주당은 특위 위원장과 간사를 우선 내정하고 인선에 착수했다"며 국민의힘의 참여를 거듭 압박했다.

당내 4선 이상 중진의원들은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해 원만한 국정조사 시행을 위한 김 의장의 협조를 당부했다. 당 관계자는 "중진들이 직접 설득에 나선 것은 압박보다는 김 의장이 결단할 수 있는 명분 제공의 성격이 있다"며 "야 3당 연대에 여론까지 국정조사에 우호적인데 의장이 조사계획서 처리를 거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사태 수습을 위해 잠시 보류했던 경찰 지휘부 파면 요구도 재개했다. 경찰 수뇌부가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책임론'과 관련해 국회와 언론을 상대로 한 정보수집을 내부 지시했다는 전날 언론 보도가 기쁨을 부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참사 직후 시민단체를 사찰하고 여론동향을 탐문해 질타를 받는 가운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작태를 벌였다니 부끄러움을

모르는 파렴치한들"이라고 비난한 뒤 "윤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과 윤희곤 경찰청장을 즉시 파면하고 국정조사를 당장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인사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최종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것으로 보고 당 차원의 대대적 방어 태세를 유지했다. 이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가 본격화할 경우, 총선을 앞두고 당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른바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대한 당의 총력 대응을 두고 일부 비이재명계층 중심으로 파열음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일단은 단일대로 맞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한 상황이다. 한편, 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박문수기자 pms5622@jeonmae.co.kr

민주 ‘지역화폐’ 간담회...李 “이해 못할 예산 전액 삭감”

“소액 예산으로 큰 효과 분명 예산 심의서 복구 역점 둘 것”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에서 '이재명 표 정책' 중 하나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복원을 위한 여론전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지역화폐 예산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전날 국민의 73.2%가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지원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이틀째 홍보 활동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7천억 원원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간담회에 직접 참석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 대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압도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정부 정책이고, 매출 감소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도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지역화폐를 꼽는다"며 "지역화폐를 성남시에서 시작해 개인적인 자부심도 있지만, 그런 인연 때문이 아니라 정부 예산이 소비 진작에 큰 도움을 주는 '승수 효과'가 높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액의 예산으로 큰 정책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분명한데, 이번 정부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없애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방침을 들고나왔다"며 "민주당은 이번 예산 심의에서 역점을 두는 것이 지역화폐 예산 복구"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마

중몰로 (지역화폐 예산) 7천억원을 내놓으면, 30조원이 판매될 경우 3조원을 다시 부가세로 기획재정부가 걷어가는 남는 장사"라며 "미중몰도 안 내놓고 돈을 걷어가겠다니, 내놓을 수 있게 예산을 꼭 살리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장은 "지역화폐 예산이 여야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정부의 전액 삭감은 얼토당토않은 말이다. 되려 예산을 더 늘려 여야가 민생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시민들이 굉장히 실망이 클 것"이라며 "지역화폐 예산이 복구되면 저희가 시 재정을 늘려서라도 발행 규모를 올해보다 늘릴 용의가 있다"고 예산 반영을 호소했다. 박문수기자 pms5622@jeonmae.co.kr

대경지역 미래 CASE 산업을 선도하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계명문화대학교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
Culture & Arts / Smart Edu-Tech / Water & Environment with Safety

산학연계 인력 양성, 지역 특화 취창업, 스마트 교육서비스 ICC, 공유협업 플랫폼, 미래 융합경안전 ICC, K-문화 예술 ICC, 글로벌 산학협력, 미래 CASE 산업 가치 창출

LINC3.0 사업단 053)589-7972 계명문화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전경 (계명문화대학교 제공)

미래 CASE 산업 선도 산학협력 학교로 자리매김

계명문화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가 대구·경북지역 미래 CASE산업을 선도하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학교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이 학교는 지난 5년간 LINC+ 사업을 통해 산학협력 강화 및 사회맞춤형 교육으로 문화서비스산업 맞춤형 신직업인을 양성하는 등 우수한 실적과 성과를 거뒀다. 4~5년차(2020년~2021년) 연차평가 최우수 등급(A등급)과 5개년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91.53점(권역별 평균점수 84.85점)을 획득해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임을 입증했다.

그 결과 지난 5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추진하는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이하 'LINC 3.0 사업')에 선정돼 2022년부터 2027년까지 6년간 120억원 이상을 지원받아 사업을 운영한다. LINC+ 사업에 이어 총 11년간의 사업 운영으로 계명문화대는 산학연협력 역량을 강화 및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선도대학으로 자리를 굳건히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LINC 3.0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과 우수한 성과 창출을 위해 그동안 TF 운영과 주요보직자 워크숍, 학과 설명회, 전체 교수회의, 대학 구성원 워크숍 등을 통해 지난 LINC+ 사업의 성과 분석 및 환류과정을 거쳐 기존 핵심 프로그램의 유지·발전과 신규 핵심 프로그램을 발굴했으며 산업체 수요조사 등 대학과 산업체 간 연계를 기반으로 LINC 3.0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계명문화대는 산학협력 분야의 공유·협력을 통한 대구·경북지역 미래 CASE 산업의 맞춤형 인재 양성 및 선도대학 고도화 기반 구축에 나선다.

CASE 산업은 (CA)디지털 뉴딜과 맞물린 전통적 우위 분야인 교육서비스 분야 (S)대구·경북 및 대학 특화분야인 문화창조 산업 (E)대구광역시와 5+1 신산업 중 물산업과 환경, 그린에너지 산업과 연계된 산업을 뜻한다.

이에따라 이 학교는 LINC 3.0 사업 비전 실현과 함께 산학협력중장기 발전목표인 'KM-문화융합 인재 양성을 통한 대경지역 사회 기여 산학협력 선도모델 확산'을 달성하기 위한 선제 요건인 '권역 CASE 산업을 선도하는 산학협력 선도대학'으로 도약을 사업 목표로 삼았다.

또한 문화예술산업, 교육서비스산업, 물환경안전산업 관련 기반 선도모델을 활용한 산학협력 체제 구축을 기반으로 산업영역의 융복합 추세에 맞춘 융합산업 범위 확대와 서비스 산업혁신에 대한 연차별 추진전략을 도출했다.

이와함께 지역사회 기반 산·학연계 인재양성, 지역 특화 취·창업 모델 구축 및 운영, 미래 CASE 산업 기반 ICC 구축 및 운영, 산학협력의 글로벌 영역 확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3단계 산학연 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사업 선정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연계 LINC 3.0 사업 운영 사회맞춤형 역량강화·우수성과 창출 '고군분투'

성과 공유·협업 모델 구축을 LINC 3.0 사업 5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해 놓고 있으며 5대 추진전략에 맞춰 세부 전략과제 15개도 수립해 사업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성공적인 사업 운영과 지역사회 및 산업체의 공동발전을 위해 지역 및 산업체, 대학 간 이해관계자의 수요 및 요구분석 등을 통해 지역 특화형 사업 추진전략 간의 연계성 확보와 함께 교육성과 공유·확산 및 사업종료 후 자립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산학협력 선도모델 창출의 차별성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지역특화 중심 기업협업센터인 K-문화예술 ICC, 스마트교육서비스 ICC, 미래물환경안전 ICC를 구축해 소통하고 협력하는 창의적 인재, 공동체와 함께하는 사회적 인재,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인재, 사회적 책임을 다하

는 공유·협력형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계명문화대는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산학협동 업무협약과 산학협력단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상생과 LINC 3.0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초석을 다져오고 있다.

또한 사업 조직 안정화 및 지속가능성 향상과 효율적인 사업운영 및 우수한 성과창출은 물론이고 본부 조직과의 업무연계성 확보와 LINC 3.0 사업 운영과 지원이 용이하도록 관련 규정을 제·개정해 LINC 3.0 사업단을 산학협력단에 편성했다.

특히 LINC 3.0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의사결정의 신속성 및 체계성과 본부와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통한 객관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사업의 책무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자체평가위원회도 구성해 사업 평가 및 성과 분석, 환류계획 수립 등 종합평가를 실시해 사업 성과를 극대화해 나갈 예정이다.

일부 학과(부)가 참여한 지난 LINC+ 사업과 달리 이번 LINC 3.0 사업에는 대학 전체 학과(부)의 참여를 전제로 하고 선제적인 대응 및 지원으로 산학협력 성과 창출을 선도할 ICC 특화중심의 주력학과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한다. 각 ICC 별 선도-성장-확산 단계별 인재양성유형과 성장융합산업, 확산 및 혁신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하고 ICC 특화중심의 주력학과는 단계별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뿐만아니라 LINC 3.0 사업 핵심성과지표 11개와 자율성과 지표 5개를 설정, 연차별 목표 달성을 위해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성과지표와 연동해 선순환적 관리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상시적 모니터링 및 환류를 실시한다.

이밖에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과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등 타 재정지원사업의 주요 성과를 LINC 3.0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한편 타 재정지원 사업과의 차별화 및 중복방지를 위해 재정집행중복방지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있는 등 산학협력 역량강화와 우수한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대구/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미니인터뷰-



계명문화대학교 박승호총장

“미래형 융복합 우수인재 양성 운힘”

박승호 계명문화대 총장은 “계명문화대는 60년 역사와 전통으로 다져진 체계적이고 우수한 교육 시스템과 지역사회 및 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금까지 9만여명의 전문직업인을 배출해 국가와 지역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말했다. 또 “지난 LINC+ 사업에 이어 LINC 3.0 사업에 선정되는 등 명실상부한 산학연협력 선도 전문대학으로 정평이 나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올해 LINC 3.0 사업은 물론이고 2주기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사업,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2022년 파란사다리

사업 등 굵직한 국고지원 사업에 잇달아 선정되는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계명문화대학교는 앞으로도 LINC 3.0 사업을 통해 현장 맞춤형 인재 및 미래 신산업분야에 적극 대응하는 미래형 융복합 인재 양성을 통해 대학경쟁력을 강화하고 학생 현장실무능력 향상 및 국내외 취업률 제고로 수요자 만족도를 향상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산학협력 체질 강화로 지역사회 및 산업체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학의 모든 역량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천안시의회
www.cheonanCouncil.go.kr

제255회 제2차 정례회
11월 21일(월) ~ 12월 21일(수)

든든한 힘
시민의 힘
새롭게 도약하는
천안시의회





전월세안심계약도움서비스연장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 안심계약을 돕기 위한 '함께 알아볼까요? 도와줘! 싱글홈'을 내달 29일까지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시작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가구가 안심하고 전월세를 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을 소유하고 공인중개업 경험이 있는 주거안심매니저가 전월세 계약상담부터, 주거지 탐색 지원, 집보기 동행, 주거정책 안내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구청 이모저모

찾아가는 창의과학 프로그램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과학문화 향유 기회가 적은 계층을 직접 찾아가 창의과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금천을 찾아가는 사이언스큐브(금찾사)'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내달 9일까지 장애인센터, 노인시설, 청소년쉼터, 다문화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참여기관의 특성 및 수준을 고려한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장애인 복지시설인 금천어울림복지센터의 경우는 원활한 체험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보조인력을 일대일로 투입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에는 시니어클럽, 호암노인종합복지관, 어울림복지센터, 시청소년단기술클럽, 글로벌빌리지센터 등 5개 기관 150여 명이 참여한다.

어린이집 특별 소방점검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최근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대비해 안전에 취약한 어린이집 특별 소방 점검에 나섰다

점검은 내달 8일까지 관내 구립어린이집 20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을 통해 화재 발생 시 피난에 취약한 영·유아의 넘어짐, 추락으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에 주력한다.

구는 유해 및 위험 요소 발견 시 현장에서 즉시 조치해 신속하게 보수, 보강하도록 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우수사례와 사례별 전문가 자문 의견은 영·유아 재난 사고 예방 자료에 활용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재개발 상담센터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내달부터 복잡한 정비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를 돕고자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재개발·재건축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상담은 정비사업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가진 서울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관련 분야 퇴직 공무원 등 전문가들이 희망 장소로 직접 방문해 이뤄진다.

1대1 개별 또는 소그룹 상담을 진행하거나 필요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각종 사업의 추진실적 및 절차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줄 예정이다.

'장애인일자리 사업' 시행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오는 30일까지 '2023년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구는 올해 작년 대비 11명이 증가한 총 1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다.

모집 분야는 일반형일자리(전일제) 31명, 일반형일자리(시간제) 30명, 복지일자리(참여형) 39명이며, 각각 주40시간, 주20시간, 주14시간의 근무하는 조건이다.

모집 대상은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미취업 장애인이다. 일반형일자리 참여를 희망할 시 오는 30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복지일자리 경우 수탁기관에서 참여자를 직접 모집하며 이달 중 공고한다.

이수희 강동구청장 "품격있는 매력도시 만들겠다"

구의회 내년도 예산안 제출 규정연설...내년도 예산안 9803억 7728만원

이수희 서울 강동구청장은 16일 오전 강동구의회(의장 조동탁) 제298회 제1차 정례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규정연설을 통해 자랑스러운 강동을 위한 규정운영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이 구청장은 "민선8기 강동은 미래를 위해 땀 준비를 마쳤다"면서 "2030 강동을 계획하는 '그랜드디자인' ▲동부 수도권 경제중심도시 ▲교통환경 획기적 개선 ▲성심을 다하는 복지구민과 동행 ▲품격있는 도시 ▲생활SOC시설확대 살기 좋은 강동을 완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구청장은 "지난 5개월, (강동의) 변화는 시작됐다"면서 "지방선거결과

를 반영해 '더 많은 구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인가, '꼭 필요한 주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가'를 따져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이나 시류에 맞지 않는 사업들을 과감히 조정해 구민과의 약속을 담은 사업에(예산) 집중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구청장은 "(취임후)주민들의 숙원사업인 5호선 직결화와 GTX-D 유치, 고덕강일3지구 12블록 민영단지 사수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을 세 차례 만났고, 가장 급한 민생문제인 지하철 5호선 배차간격 해결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난 7월 취임한 후 5개월 동안 저는 해결해야 할 과제와 발



이수희 강동구청장이 강동구의회 정례회에서 규정연설을 하고 있다.

(강동구의회 제공)

전의 희망을 확인했다"면서 "구민과의 회, 집행부가 오로지 강동구의 미래만을 생각하고 협력한다면 자랑스러운 도시, 진심을 다해 동행하는 도시, 품격

있는 매력도시가 될 것"이라며 도움을 호소했다.

구의회에 제출된 내년도 강동구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12.41% 증가한

9803억 3728만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9381억 5005만원, 특별회계는 421억 8722만원이다.

정례회 첫날 ▲한진수 의원(강동구 미래를 생각하는 집행부의 내실 있는 예산편성에 대하여) ▲권혁주 의원(둔촌아파트재건축과 도시농업에 대하여) ▲정미옥 의원(강동구 가치중심 지역사회공헌활동에 기반한 민관 상생소수 '제인') ▲강유진 의원(스토캠범죄 없는 사회, 지역사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양평호 의원(강동구 지역균형발전 촉구) ▲이동매 의원(우리는 겨울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원창희 의원(구민안전, 더 이상 변명을 통하지 않습니다) ▲이원국 의원(운집행사로부터 안전한 강동구가 되길 바라며) 등 9명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했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강남구 '제31회 강남구민상' 시상

구민대상 세곡동 임채홍 씨

효행·봉사 등 11개 분야 수상자 선정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최근 구청에서 제31회 강남구민의 상 시상식의 개최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한 구민과 단체 11명을 시상했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지난 6월부터 지역주민들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아 심사를 통해 올해 총 11개 분야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구민 대상을 비롯해 용감한 구민상, 장한 어머니상, 효행상, 봉사상(개인, 단체), 모범 청소년상, 모범 납세상(개인, 법인), 아름다운 기부상(개인, 단체)이다.

대상에는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봉사와 나눔을 실천한 임채홍 씨(세곡동)가 수상했다. 임채홍 씨는 15년째 건전한 지역문화 조성을 위해 강연, 세미나, 문화공연을 이어왔다. 또 장학금 기부, 배식 봉사, 연탄 나르기 등 지역사회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이웃사랑을 실천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구민대상을 수상한 임채홍 씨와 조성명 구청장(좌측).

(강남구 제공)

'용감한 구민상'은 강남소방서 의용소방대장으로 특히 올해 구릉마을과 대모산 화재 때 등짐펌프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화재 진화에 참여한 이인선 씨(대치2동), '장한 어머니상'은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자녀를 훌륭한 인재로 키운 홍성란(개포2동) 씨, '효행상'은 45년간 시부모님을 모시고, 치매를 앓고 계신 104세의 친정아버지를 11년째

극진히 돌보는 효행으로 다른 구민에게 귀감이 된 민병국 씨(역삼2동)가 수상했다.

'봉사상' 개인과 단체 부문에는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봉사와 환경보호 활동을 펼친 권경화 씨(논현2동)와 범죄예방,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한 개포2동 자율방범봉사대가 각각 선정됐다. '모범 청소년상'은 탄천·양재천·세곡천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한 박세은 학생(대치2동)이 뽑혔다.

이 밖에도 ▲모범 납세상 개인 조서윤 ▲모범 납세상 단체 청호불교문화원 ▲아름다운 기부상 개인 강만길 ▲아름다운 기부상 단체 ㈜아성다이스가 선정됐다. 수상자들은 구청 홈페이지에 활동 내역이 등재된다.

조성명 구청장은 "효행, 봉사, 기부 등 각 분야별로 묵묵히 헌신해오신 수상자들의 공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나보다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본받아 더욱 풍요롭고 명예로운 강남구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도봉구의회, 모범구민 표창 수여식

서울 도봉구의회(의장 강신만)는 최근 의정실에서 주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 3명에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

수상자들은 평소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지역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숭선수범하여 지역발전에 헌신해 왔기에 그 공을 인정받아 의장표창에 선정됐다.

강신만 의장은 "그간 맡은 자리에서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봉사와 헌신해 온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지역을 위해 애써주시기 바라며, 도봉구를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의회도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홍성수기자 HongSS@jeonmae.co.kr

용산구, 용문시장 판매대 개선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관내 전통시장인 용문시장을 대상으로 점포 판매대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 주관 '소상공인 안심디자인 지원 사업'에 선정돼 3억원의 예산을 교부받아 시행하는 것.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더하고, 시장 내 적치물로 인한 통행불편 해소 및 소방도로를 확보한다는 취지다.

지원대상은 용문시장 내 개방형 판매대가 설치돼 있거나 설치 가능한 개

별 점포 60개소다. 상품 판매대는 물품원산지·가격, 제로페이 가맹점 표시 등 정보제공과 함께 위생관리가 용이한 재질 사용 등이 용고객의 편의를 돕는 디자인이 적용된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 분석은 물론 전통시장 상인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구는 내년 상반기 완료로 목표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 중이다.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중구의회, 제275회 정례회 21일 개최

내달 20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규정질문·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서울 중구의회(의장 김기영) 제275회 정례회가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상정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30일 일정으로 열린다.

17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는 21일 1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2~30일 각 상임위별로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내달 1일과

2일엔 일괄질문,일괄답변,보충질문 및 일문일답 방식의 규정질문이 예정돼 있다.

이어 내달 5~13일 각 상임위별로 상정 조례안 심사,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고 예결특위는 14~19일 각 상임위별 내년도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본심사를 벌인다.

구의회는 내달 20일 4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와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상정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채택의 건,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동대문구,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2023 따뜻한겨울나기사업'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사랑의 온도탑은 1275만원이 모금될 경우 온도가 1°C씩 상승하며, 목표금액인 12억7498만원을 달성할 경우 100°C가 된다.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중구, 市 모자보건사업 추진 평가 '우수기관' 선정

서울시 '2022 모자보건사업 추진평가'서 종합 3위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 보건소가 '2022 서울시 모자보건사업 추진 평가'에서 종합 3위를 차지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에 올 1~9월 각 자치구의 모자보건사업 세부 사업별 추진실적을 토대로 임신과 출산, 모자보건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한 자치구에 대해 점수를 매겼다. 평가대상 사업은 ▲서울아기 건

강첫걸음 ▲남녀임신준비 지원 ▲난임부부 지원 ▲구민 모자보건사업 참여도 등 5개 분야로, 남녀임신준비 지원분야와 난임부부 지원 분야에서 각각 1위를 달성했다.

구는 남녀임신준비 지원사업에서 치구의 모자보건사업 세부 사업별 높은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건강이상 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견한 점이 인정됐다.

위험요인 설문평가에 319명, 건강검진 및 가인력 검사에 647명이

참여해 이상이 발견되는 즉시 추가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했다.

서울형 난임 의료비 지원사업에서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낮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체외수정 건강보험 환수를 소진한 난임부부 3가족에게 최대 180만원까지 시술비를 지원했다. 한약 첨약비 지원도 11건에 달했다.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종로구의회, 제317회 정례회 22일 개최

서울 종로구의회(의장 라도균) 제317회 정례회가 오는 22일부터 내달 13일까지 22일간 회기로 열린다.

17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는 22일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정질문을 벌인다. 이어 23일~내달 7일 각 상임위별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상정 안건을 심사하고 내달 8~9일 예결특위에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본

심사를 벌일 계획이다. 구의회는 내달 13일 3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와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내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예상되는 안건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 조례안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2023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 ▲무형문화유산 전승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의원발의) ▲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스포츠클럽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지역간시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의원발의)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의원발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종로구명장 선정 및 육성 조례안(의원발의) 등이다.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착한가격업소’ 발굴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내달 2일까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은평구에 사업장을 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종이다. 지역 평균가격을 초과하거나 프랜차이즈, 2년 내 행정처분 이력, 지방세 체납 등에 해당하는 업소는 제외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인증 표찰, 종량제봉투, 위생용품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은평구 누리집, 착한가격업소 누리집, SNS 등에도 착한가격업소로 홍보된다.

임형천기자 ihmhc@jeonmae.co.kr

구청 이모저모

‘민간행사 안전심의위원회’ 운영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안전에 대한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 행사 안전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위원회는 최근 과밀 지역인 노원역, 상계역, 석계역 등 역세권 일대와 불암산힐링타운, 구민의정당 등 주요시설, 전통시장 및 삼정가 등 총 23곳을 시설 등을 점검했다.

유동인구가 많고 노원의 대표축제인 달축제 가 열리는 노원역 주변 좁은 골목들은 광고 적치물과 자전거 방지로 보행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시정 조치에 들어갔고 앞으로 수시 점검도 진행 된다.

신민재 작가와의 만남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 휘경행복도서관은 오는 28일 초등 1~3학년 대상으로 그림책 ‘어서와요, 달팽이’의 저자인 신민재 작가와의 만남을 운영한다.

휘경행복도서관은 지역 주민과 어린이 이용자들이 그림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도서관 1층 어린이열람실에서 그림책 원화를 전시하고 있다.

신민재 작가와의 만남에서는 그림책 ‘어서와요, 달팽이’를 작가와 함께 읽고 달팽이가 탄생하게 된 이야기와 그림책 속 가족 이야기 나누기, 우리 가족에 대해 생각해보기 등 작가와 초등생들이 함께 소통하는 책놀이를 진행한다.

K-뷰티 아카데미 종강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모)와 서경대학교가 운영하는 ‘K-뷰티 메이크업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의 종강식이 최근 서경대 유담관에서 개최됐다고 17일 밝혔다.

‘K-뷰티 메이크업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꿈꾸는 성북구 청년을 대상으로 9월 24일부터 8주간 진행됐다. 수강생들은 국내 최대 규모의 뷰티 인프라를 보유한 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에서 미용사(메이크업) 국가자격증 취득에 대비한 실습 위주의 교육을 받았다.

성북구는 이번 아카데미 참여 청년들에게 전 과정을 무료로 제공했으며, 서경대학교는 아카데미 이후에도 풍부한 뷰티 인프라를 활용하여 수료생에게 뷰티숍, 웨딩숍 등 지역 뷰티 업체 채용 연계 및 지속적인 멘토링과 사후관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장철 직거래 장터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김장철 직거래 장터’를 양천공원에서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17일 밝혔다.

구는 올해부터 김장철 직거래 장터 참여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해 구민이 다양한 지역 특산품과 신선한 김장재료를 접하도록 했다.

자매결연도시인 부여군, 순천시, 강화군 등을 비롯해 신규 참여지인 강릉시, 의성군, 공주시, 여주시 등 총 23개 지자체와 관내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 34개 업체가 참여한다.

지역의 특산물 및 절임배추, 김장채소 등 다양한 상품이 판매되며, 주민편의를 위해 관내 무료 배송 서비스도 지원한다.

도봉구, 민선8기 첫 내년 예산안 편성...7919억 원

사회안전망 강화·지역경제 활성화·지역발전 로드맵 수립 등

행사·축제성 경비·공공부문 사용경비 축소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연석)가 최근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다.

구가 2023년에 편성하는 예산안은 총 7919억 원이다. 이는 올해 예산인 7392억 원보다 527억 원(7.14%)이 늘어난 규모다.

분야별 주요예산 현황을 보면, 안전하고 건강한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초연금 지원에 1616억 원, 아동수당 지원사업에 144억 원,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101억 원 등을 투입한다.

복지사각지대 선제적 발굴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6개 사업에는 10억 원을 편성했다. 우리동네돌봄단 운영을 통해 복지대상자 방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IoT기기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고독사를 예방하는 등 사회복지 분야에 예산 전체 예산의 55%에 해당하는 4355억 원을 편성했다.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총

9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고, 공동주택 및 건축공사장, 각종도로와 하천, 하수 시설물의 안전점검 예산으로 5억 원을 편성해 선제적으로 위험 요소를 제거한다. 재해, 재난 목적예비비는 전년 대비 28억 원 증액한 70억 원을 마련했다.

교통이 편리한 균형발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방학동 179-5 등 도로개설 사업에는 53억 원,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저층 주거지역 공영주차장 건설에는 23억 원, 도봉형 스마트쉼터 조성 등 버스 승강장 이용환경 개선사업에는 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구민들의 교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도봉산역 급행전철 추진 연구 용역에 2억

500만 원을 편성했다.

질 높은 교육문화도시 분야에서 친환경 학교급식 및 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77억 원,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도봉형 방과후 활동 추진에는 24억 원을 편성했다. 구는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료와 원어인 영어화상학습 지원을 통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입시설명회와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 학부모들에게 다양하고 체계적인 진학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43억 원, 도봉사랑 모바일 상품권 발행에 20억 원, 청년들의 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한 공유주방 조성

에 13억 원, 창업 교육 및 임차료 지원 등 신규 창업자 지원을 위한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2억 원, 의료 및 양말제조 업체 환경 개선 사업에는 1억 원을 편성했다.

오연석 구청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재정여력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주민들과 도봉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도봉의 미래를 위한 사업 추진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상수기자 HongSS@jeonmae.co.kr

김경호 광진구청장 ‘골목 경로·골목 돌봄’ 주민 밀착소통

격주 1회 민생현장 찾아

각계각층 구민과 진솔한 대화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최근 주민과 함께하는 ‘골목 경로’와 ‘골목 돌봄’에 돌입하고, 중곡3동에서 첫 발걸음을 시작했다. 1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주민과 함께하는 ‘골목 경로’와 ‘골목 돌봄’은 지역 내 어르신들과 취약계층 주민의 민생현장을 찾아 소통을 나누고, 구민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행보다.

골목 경로를 통해 김경호 구청장은 격주 화요일마다 지역 내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을 만나 안부를 묻고 불편 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어르신들! 전작에 찾아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구청장님, 제가 직접 만든 식혜 좀 드셔보세요” 이날 김 구청장은 중곡3동의 어르신들과 함께했다.

“지역 발전 많이 시켜주세요”, “티브이가 잘 안 나오는데 큰 걸로 교체해주세요”, “노래방 기기 바꿔주세요” 어르신들은 지역 발전부터 생활 불편까지 다양한 의견을 건넸다. 애창곡을 불러 달라는 어르신들의 요청에 김 구청장은 가요 ‘무조간’을 열창하며 눈높이에 맞춘 진솔한 소통을 이어갔다.

골목 경로에 이은 골목 돌봄은 격주 화요일마다 지역 내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복지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안부를 살피고,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호광진구청장이 중곡3동 골목경로에서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듣고자 정성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다. (임진구 기자)

이날은 90대 독거 어르신 가구와 한 부모 가구를 방문했다. 김 구청장은 어르신의 건강과 주거 환경을 걱정하며 빠른 걸음으로 이동했다.

“누구세요?” “구청장입니다, 구청장!” 반지하 주택을 방문한 김 구청장은 청력이 안 좋으신 어르신들 위해 씩씩한 목소리로 인사를 드렸다. 김 구청장은 어르신의 건강을 확인하고 옮겨줄 찬 바람을 막아줄 단열 에어캡을 창문에 붙이며 어르신의 삶을 꼼꼼히 살폈다.

어르신은 연신 반가움과 고마움을 전하며 김 구청장의 손을 잡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어 방문한 한부모 가정에서 김 구청장은 혼자서 두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를 격려했다. 수능 인강, 수학여행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안내하고, 구 담당자에게 “200가구 보듬기 사업”과 연계한 지원 방법을 모색하도록 지시했다.

“행복하시니 큰 힘이 됩니다”라며 어머니는 자녀들의 학원이나 공부를 지

원반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김 구청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며 “이렇게 필요한 것을 말씀 하셔야 더 도와드릴 수 있다, 의견 감사 드리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골목 경로와 골목 돌봄은 민선8기 역점사업인 ‘골목 소통’의 일환이다. 골목 소통은 ▲청소 ▲돌봄 ▲경로 ▲경정 ▲봉사 총 5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김경호 구청장이 광진구 곳곳을 누비며 각 계층 구민과 진솔한 만남을 갖고, 다채로운 소통을 통해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며 구의 발전을 도모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제 복지는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닌 구민의 권리”라며 “순만 뺏으면 도와드릴 수 있으니, 누구든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구에 자주 이야기하고 요구해 달라”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민생현장을 찾아 구민들과 더 가까이에서 눈높이에 맞춘 소통을 계속할 계획이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돌입

서울 강남구의회(의장 김형태)는 16일부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의원들은 사전에 수집된 자료와 소관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요구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서류감사,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필요

에 따라 증인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행정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4일까지 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된다.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영등포구 무역사절단,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에서 ‘결실’

총 93건·1750만 달러 수출상담 성과 달성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파견했던 ‘2022 동남아 무역사절단’이 큰 성과를 거두고 귀국했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5박 7일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무역상담회를 각각 개최했다.

무역사절단에는 관내 수출 유망 중소기업 9개사가 참여했으며 수출 상담 총 93건, 1750만 달러를 달성하

고 계약추진 58건, 598만 달러의 성과를 이뤘다.

무역사절단은 사전에 발굴한 바이어에게 브로슈어, 샘플 등을 선보이며 관내 중소기업의 우수한 상품을 홍보하고 계약 상담을 진행했다. 이에, 주방용품, 화장품, 휴대용 엑스선 발생장치, 동물용 의약품 등 다양한 상품이 동남아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수출 증대를 이끌게 되었다.

특히, 참여 업체 중 하나인 원원코리아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상담회 현장에서 현지 바이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그림파워테크, 솔테인 포넷 주식회사 등은 한층 심도 있는 상담을 위해 현지 기업을 직접 방문하는 등 개별 상담을 적극 추진했다.

무역사절단은 상담회장을 방문한 기업들과 지속적인 상품정보 교환과 가격 협상 등을 통해 향후 계약을 원활하게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은평구의회, 제296회 제2차 정례회 22일 개최

서울 은평구의회(의장 기노만) 제296회 제2차 정례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내달 16일까지 25일간 회기로 열린다.

17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는 23일부터 내달 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내달 6일과 7일 계수조정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 등을 의결한다.

이어 내달 8~12일 각 상임위별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13일 각 상임위별 상정 조례안 심사, 14일과 15일엔 1,2차 구정질문이 예정돼 있다.

구의회는 내달 16일 4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와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상정 조례안과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예상되는 안건은 ▲2023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음부조만 위촉 동의안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 조례안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치매안심센터 민간 위탁 재계약보고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3년~2027년 장기공유재산관리계획 보고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불광제5주택지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대교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불광천 생태학습체험방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수색 재활용품자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등이다.

임형천기자 ihmhc@jeonmae.co.kr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45차 시도대표 회의. (안서우 기자)

강서구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개최

서울 강서구의회(의장 최동철)는 지난 15일 강서구의회 1층 다목적실에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봉환) 제245차 시도대표회의를 개최했다.

최봉환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회의는 주관한 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장(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의 환영사와 협의회 활동사항 보고, 안전심사, 현안문제 논의 등이 이어졌다.

또한 서울 강서구의회 박학용 부의

장을 비롯한 9명의 의원에게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해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여했다.

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희생자 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의장협의회가 소통을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송파구의회,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 참여

서울 송파구의회(의장 박경래)는 최근 울림피킹업 케이스포동에서 열린 2022년 송파구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참여했다고 17일 밝혔다. 박경래 의장은 서강석 구청장 등 관계 기관장들과 함께 방화복을 입고 화재진압을 위한 일제방수를 직접 체험했다.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지역특산물 홍보·판매 활성화 협약

인천 용진군은 인천시의회와 함께 지역특산물 홍보 및 판매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시의회에서 홍보 물품을 구매 시 인천만의 특색을 담은 지역특화상품을 선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어어에게 도움을 주며 지역특산물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시 의원은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지역특산물의 판로를 지원하고 농어촌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경복 군수는 “우수특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명창수기자 mchs@jeonmae.co.kr

속의 기반 주민 참여 분야 최우수상

인천 부평구가 행정안전부 주최 2022년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속의 기반 주민 참여’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같은 ‘문화의 거리’ 상업지역을 약 200m 연장하는 과정에서 보도 폭을 기존 5m에서 8m로 확대하면서 시작했다.

사업 대상지 주변 상인들은 보도 폭 확장과 주차장 폐지를 반대하고 나섰다. 학교 측은 어린이보호구역 해제 반대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요구했다. 주민들은 보행환경을 개선해줄 것과 보도 폭을 조속히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는 갈등 해소를 위해 공동체 소통 회의를 진행했으며 상권 활성화와 안전한 통학로, 깨끗한 보행환경을 위한 최적의 합의를 도출했다.

이번 사례는 학부포, 상인회 등 정책 수용도를 높이고 공론화와 조성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인천/ 명창수기자 mchs@jeonmae.co.kr

취약 위기기업 ‘일공달공 클래스’ 운영

인천 계양구 가족센터는 취약 위기기업을 대상으로 원데이클래스 프로그램 ‘일공달공 클래스’를 운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부모, 자녀 등 100명을 대상으로 케이크, 마카롱, 쿠키, 떡 케이크, 구유과자(휴남시예) 만들기 등 5가지 내용으로 구성됐다. 수업당 10가정씩 참여할 수 있으며 한 가지 프로그램만 선택할 수 있다.

일공달공 클래스 프로그램은 지난날 31일부터 시작해 이날 30일까지 계양구 가족센터에서 진행된다.

인천/ 명창수기자 mchs@jeonmae.co.kr

난방용품·연말연시 행사 물품 검사 강화

인천세관은 ‘난방용품 및 연말연시 행사 물품’에 대한 검사를 내달 31일까지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검사 대상 품목은 난방용품(히트·핫팩·전기담요·히터·전열기), 장식용품(LED장식조명·램프·파티용품·기타 장식용품), 실내용품(실내 매트류·실내 게임용품·장난감) 등 23개가 선정됐다.

인천세관은 제품 안전성 및 가격·수량 허위신고, 품목 분류 세율 오작동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전열기 등 난방용품과 조망기기 등 장식용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및 전파법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인’ 또는 ‘국립전자연구원’에서 안전 인증 등 관련 요건을 구비한 후 수입 신고해야 한다.

인천/ 명창수기자 mchs@jeonmae.co.kr

수능일 청소년 유해업소 민관 합동 지도점검

인천 연수구는 17일과 1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청소년들의 일시적인 해방감으로 인한 일탈을 예방하고 자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연수구청·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합동으로 16명 8개 점검반을 구성해 연수동 먹자골목, 송도동 드림시티 등 청소년 이용시설이 밀집한 지역의 호프집, 유흥주점 등 주류 판매 식품점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특히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 고용, 청소년 주류 제공 등 각종 불법행위, 조리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인천/ 명창수기자 mchs@jeonmae.co.kr



동구청장기 게이트볼 대회 개최

인천 동구는 최근 환경동 게이트볼장에서 제27회 동구청장기 게이트볼 대회를 열었다. 동구체육회가 주최하고, 동구게이트볼협회에서 주관한 대회에는 9개 클럽 6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진석 구청장은 “이번 대회가 게이트볼 동호인들의 화합과 소통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 정월근기자 wk-ok@jeonmae.co.kr

인천시선관위, 조합장선거 ‘돈 선거’ 척결

인천시선관위위원회는 주요 간부 및 군·구 선관위 사무국·과장 등이 참석해 ‘중점 관리대상’ 논의 금품제공 신고 포상금 최고 3억·금품 반출시 최고 50배 과태료

인천시선관위위원회는 주요 간부 및 군·구 선관위 사무국·과장 등이 참석해 ‘중점 관리대상’ 논의 금품제공 신고 포상금 최고 3억·금품 반출시 최고 50배 과태료

원외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보호 특별 대책 마련, ‘돈 선거’ 척결 전담 광역조사팀을 운영해 금품 제공자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하고, 금품을 받은 사람은 최고 50배 과태료 부과, 과거 ‘돈 선거’ 발생한 지역 등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광역조사팀 상주 및 야간 시간대 특별단속 등 실시, 조합 임·직원 및 조합원 대상으로 금품선거 예방 교육 실시하고, 총회·대의원회의, 각종 모임 등 계기를 활용해 적극적 안내·예방활동 전개, 이·반장, 영농·부녀회장, 어촌계장, 조합 대의원 등을 ‘조합선거 지

킴이’로 선정·운영해 자정노력을 권장하기로 했다.

시선관위는 선거인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선거안내서비스를 구현하고, 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명확하고 공정한 법규를 운용할 계획이다.

특히 조합장 선거의 특성을 반영해 선거관리 인적·물적 자원의 안정적 확보로 최첨단 선거관리기반 구축하고, 관계 기관, 개별 조합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위탁선거 법규·편람·지침 등 준수를 통한 공정성과 정확한 절차사수 관리로 합법성·정확성 확보할 예정이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조합 운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며 “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 척결에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 고질적인 금품 수수 관행을 근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 정월근기자 wk-ok@jeonmae.co.kr



경서동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주관: 경서동사단 후원: 경서동발전협의회

서구 경서동사단, 김장 나눔 행사

인천 서구 경서동사단 김장 나눔 행사가 최근 수도권매일지 경서동발전협의회 후원으로 진행됐다. 직접 재배한 배추 1500여 포기의 김장 담그기 행사에는 김법석 서구청장을 비롯해 신동근 국회의원, 김동현 주민지원협의회 위원장, 신태권 왕길동 아파트발전위원회 위원장, 김기호 주민지원협의회 부위원장, 김희철 서구의원, 이재현 서인천농협조합장, 손원백 그린에너지개발 사장, 김윤열 은누리병원 이사 등이 참석했다.

인천/ 명창수 기자mchs@jeonmae.co.kr

인천시, 도심항공교통 국제협력체 공식화

인천시 ‘도심항공교통 특화 국제행사’ 성료 <上>

K-UAM Confex 개최...최신 기술 동향 주제강연·기업 전시회 등 진행
LA·뮌헨·일드프랑스·두바이 등 협력체 구축...공항·대학 등 11개 기관 참여

인천시가 ‘도시와 인간, 도시와 도시를 연결한다’ 주제로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 동안 영종국제도시 파라다이스시티호텔에서 ‘2022 K-UAM Confex’가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시가 주최하고, 항공우주산업협업원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필두로, 미국, 인천관광공사, 인천대학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의 기관이 공동주관했으며, 국토교통부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했다.

또 현대자동차그룹, 대한항공, 한국관광공사, 한국PCO협회가 특별후원했고, 경인방송 항공뉴스센터가 주관 방송체로 참여했다. 캠프렌과 스타버스트(미국)가 국내·외 행사기획 역할을 수행해 완성도를 높였다.

아시아의 허브 인천에서 두 번째 열린 행

서구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배제 돼”

인천 서구는 최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장을 만나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사업 업무협약에서 구가 배제된 것은 물론, 사전에 아무런 협의조차 없었다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1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해당 업무협약은 서울시, 김포시, 서울 강서구가 발의하여 중점인 서울 지하철 5호선을 김포까지 연장하고 강화차량 기지와 건설비 등을 처리업체 이전을 추진한 것이다.

이에 관련 강법석 서구청장은 “서울 강서구가 발의하여 중점인 서울 지하철 5호선을 김포까지 연장하고 강화차량 기지와 건설비 등을 처리업체 이전을 추진한 것은 ‘국토부는 인천시의 기지와 건설비 부담을 전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강법석 서구청장은 “서울 강서구가 발의하여 중점인 서울 지하철 5호선을 김포까지 연장하고 강화차량 기지와 건설비 등을 처리업체 이전을 추진한 것은 ‘국토부는 인천시의 기지와 건설비 부담을 전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에 따른 인천시(안) 의견에 맞춰 진행해야 할 당위성은 충분하다”면서 “우리 구도

단시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서울 지하철 5호선뿐 아니라 서울 지하철 9호선 직결 문제와 관련된 사전에 아무런 협의조차 없었다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국토부 광역교통정책과장은 “노선계획에 관해서는 지자체 간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국토부는 인천시와 김포시 간 노선(안) 합의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구 관계자는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김포 연장사업이 경제성을 확보하려면 해당 노선이 김포신도시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국토교통부 발표에서 세부 노선(안)은 관련 지자체 간 추가적인 협의를 필요하다고 한 만큼 김포와 김포시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노선안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명창수기자 mchs@jeonmae.co.kr

인천경찰청, 수험생 8명 순찰차로 시험장 이동

인천경찰청, 수험생 8명 순찰차로 시험장 이동

시험장 57곳 주변 도로 특별 교통관리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7일 인천에서 입실 시간에 쫓긴 일부 수험생이 경찰 순찰차를 타고 시험장에 무사히 도착했다.

1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오전 수험생 8명을 순찰차로 시험장까지 직접 이송했다고 밝혔다.

수험생 A군은 입실 마감 시각(오전 8시 10분)을 쫓느라 앞둔 오전 7시 45분께 인천시 서구 한 길에서 급히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서부서 불로지구대 경찰관들은 A군을 순찰차로 태운 뒤 4km가량 떨어진 대인고 시험장까지 무사히 이송했다.

오전 7시 50분에는 수험생 B군이 부평구 백운역 인근에서 부모와 함께 다급하게 택

시를 잡고 있었다.

이 모습을 본 부평서 백운파출소 경찰관들은 B군을 순찰차에 태운 뒤 입실 마감 시각 전 무안역고 시험장에 도착했다.

경찰은 또 택시 등에 타고 있다가 차량 정체로 도로에 갇힌 수험생 2명을 오토바이로 호송했다.

시흥고에서 시험을 치른 수험생 2명은 입실 시각 5분 전에 경찰 오토바이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수험생들이 차질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오전부터 시내 시험장 57곳 주변 도로에서 특별 교통관리를 했으며, 시험장 변경 2km 이내 주요 도로에 경찰관 256명과 함께 수험생전자 등 247명을 집중배치하고, 경찰 오토바이와 순찰차 85대도 투입했다.

인천/ 명창수기자 mchs@jeonmae.co.kr

중구, 겨울철 자연재해 대비 종합대응 계획 수립

13개 실무반·17개 담당부서 편성

인천 중구는 구민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겨울철 자연재해(설해·한파) 종합대응 계획을 수립했다.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대설·한파 종합대책기간으로 정해 기상특보 때 24시간 비틈 없는 상황 관리 체계를 유지한다.

특히 구는 상황관리총괄반 등 유관기관을 포함한 13개 실무반과 17개 담당부서를 편성해 분야별 사전대비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상황발생시 신속하게 초동 대처하는 등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 도로제설대책반을 운영해 고갯길 등

재설취약구간에 신속하게 대응,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한파 대비IT팀을 구성해 특가·인, 쪽방주민, 노숙자 등의 취약계층 보호와 농·수산시설 피해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경현(시진) 구청장은 “겨울철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정월근기자 wk-ok@jeonmae.co.kr

인천시, 인파 몰리는 상가밀집구역 불법건축 실태점검

인천시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이태원 참사사고 관련, 유사사고 방지와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유동인구가 집중될 우려가 있는 상가지역에 대한 불법건축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관할 구와 협동으로 도로 폭이 좁고, 다수의 인파가 집중될 우려가 있는 상가 밀집구역 3개소(주인 2000거리, 구월 로데오거리, 부평 테마거리)를 대상으로, 보행자 통행을 저해하는 무단 증

실제로 영업점 이전과정에는 기존에 잉여가 나는 지점을 왜 폐점시키며 이전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지점을 찾아 영업점 입지조건과 지점직원의 의견 등을 청취한 결과, 타 금융기관 등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점포 이전 등을 통한 영업환경 개선이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결정, 금년에 2개 지점을 우선적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박 조합장은 “앞으로 매년 순차적으로 점포를 이전, 조합원과 고객들에게 최선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영업환경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러 작년 6월 조합장 보궐선거로 당

선대 조합장직을 수행한지 16개월의 짧은 기간이지만, 조합의 내실 있는 경영으로 금년 5%의 출자 및 이윤과배당을 실시했다. 올해 10월 현재 24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했고, 연말까지 약 35억 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조합원에게 5% 이상의 배당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조합원의 각종 편의증진을 위한 지점포를 이전, 조합원과 고객들에게 최선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영업환경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 정월근기자 wk-ok@jeonmae.co.kr

웅진수협 ‘동암역지점·미추홀지점’ 개점...타 금융기관과 경쟁 위해 이전

웅진수협은 최근 ‘동암역지점, 미추홀지점’ 상호영업점 개점식을 서북촌 수협중앙회 지도경제 기획부 대표, 노동진 진해수협 조합장, 최민석 인강망수협조합장, 백철희 영흥수협조합장, 이이명 웅진무역외역, 신수정 현대공업(주) 회장, 각계인사, 비서관 이사, 대의원, 어촌계장, 조합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웅진수협은 1977년 6월 상호금융 업무를 처음 개시했다. 올해 10월 기준 현재 예탁금은 116억1000만 원을 달성했으며, 대출금은 59억 원으로 상호금융 사업규모 2조 원을 달성, 수협 상호금융을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백경서 웅진수협 조합장은 “이번 개점식을 진행한 동암역지점은 1989년 개점한 심정지점의 주변 환경이 점점 노후화되고 있다”며 “유동인구 등이 적어 지점으로서 더욱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돼 과감하게 유동인구와 영업환경이 좋은 현재 동암역으로 이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미추홀지점은 수협 본점건물이 도화재개발구역으로 편입돼 내년 본점건물을 비워주고 이전해야 하는바, 향후 점포의 이전입지 조건 등을 감안해 본점건물 이전 전에 미리 상호금융 점포를 이전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웅진수협은 최근 서북촌 수협중앙회 지도경제 기획부 대표, 노동진 진해수협 조합장, 최민석 인강망수협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암역지점’ 개점식을 가졌다.

실제로 영업점 이전과정에는 기존에 잉여가 나는 지점을 왜 폐점시키며 이전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지점을 찾아 영업점 입지조건과 지점직원의 의견 등을 청취한 결과, 타 금융기관 등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점포 이전 등을 통한 영업환경 개선이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결정, 금년에 2개 지점을 우선적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박 조합장은 “앞으로 매년 순차적으로 점포를 이전, 조합원과 고객들에게 최선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영업환경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러 작년 6월 조합장 보궐선거로 당



재설취약구간에 신속하게 대응,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한파 대비IT팀을 구성해 특가·인, 쪽방주민, 노숙자 등의 취약계층 보호와 농·수산시설 피해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안양시, 우수 첨단기업 유치 ‘가속페달’

서천군, 지역 청년커뮤니티 공모

충남 서천군이 19일까지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커뮤니티 6팀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선정된 청년커뮤니티 6팀은 내달 중순까지 활동하며 자원유형은 취미공유반과 취미탐색반으로 구분된다.

취미공유반은 문화예술, 신체활동, 자아탐색 등 다양한 분야의 취미생활을 공유하며 취미탐색반은 본인의 취미를 모르거나 새로 배우고 싶은 것을 다른 청년과 커뮤니티를 형성해 학습하게 된다.

커뮤니티 활동비는 신청서와 활동계획서에 따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되며 모임에 필요한 회의비, 교통비, 강사섭외비, 교육비, 재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커뮤니티 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청년 간 취미생활을 공유하고 함께 다양한 활동으로 유대감을 형성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천/ 노영철기자 noyc@jeonmae.co.kr

경기교육청, 교육감 사헌문 배포

경기교육청이 고교 평준화 지역 중학교 3학년 학부모 대상으로 2023학년도 후기고 학생 배정 방안을 안내하는 교육감 사헌문을 배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헌문은 내달 9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하는 고교 평준화 지역 일반고와 자율형 공립고 입학 원서 접수에 앞서 학생 배정 방법에 대한 학부모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사헌문에는 선지원 후추첨 방식, 단계별 지방 순위 작성 및 배정 방법,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와 일반고 동시 지원 가능, 학생 배정 방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 당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사헌문은 평준화 지역 교육지원청 및 각 중학교 누리집에 탑재하며 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학 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파주시, 예쁜간판 공모전 우수작 9점 선정

경기 파주시는 ‘제13회 파주시 예쁜간판 공모전’ 우수작 9점을 선정, 오는 24일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창작 간판과 설치간판 부문으로 나누며 올해는 총 88점의 작품이 접수돼 우수작 9점을 선정했다.

창작간판 부문에는 대상 문정현씨의 ‘니무’를 디자인하다 ‘뽕뽕쟁이’, 최우수상 박영민씨의 ‘꽃단지’, 우수상 김용진씨의 ‘봄이네 웃수선’, 장려상 김지선씨의 ‘평화오면’과 주영씨 ‘두 번째 작업실’이 선정됐다.

설치간판 부문에는 대상 양영주씨의 ‘살구’ 제로웨이스트상, 최우수상 우원길씨의 ‘다채플’, 우수상 조운아씨의 ‘아스텔’, 장려상 이창원씨의 ‘파주수국길 플랫폼’이 선정됐다. 파주/ 임정희기자 imci@jeonmae.co.kr

군포2동 행정복지센터, 심폐소생술 교육

경기 군포2동 행정복지센터가 최근 응급처치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최근 군포2동 통장협의회 통장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주민들과 교류가 잦은 통장들을 대상으로 진행해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지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실시했다.

이번 심폐소생술에 대한 이론과 실습 등 긴급구조 관련 교육은 군포소방서 재난예방과의 협조를 받아 실시했으며 최근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교육에 참여하는 통장들은 진지한 모습으로 교육에 임했다고 밝혔다.

안종국 군포2동장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통장들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응급상황 시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군포/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성남문화재단, 김정원 피아노 리사이틀 내달 8일에

경기 성남문화재단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견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솔로 리사이틀 ‘클라비포에지(KLAVIPOESSY) : 간반으로 쓰는 시’를 내달 8일 성남아트리움 대극장에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피아니스트 김정원은 섬세한 감성이 빛나는 아름다운 음색, 감칠맛이 폭발적인 에너지로 활기 가득하고 있는 피아니스트로 손꼽힌다.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와 프랑스 파리 고등극립음악원 최고 연주자 과정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으며 동양음악콩쿠르 1위, 비엔노르과 국제피아노콩쿠르 1위, 마리아 카날스 국제피아노콩쿠르 금메달 등 국내외 주요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클래식계에 이름을 알렸다.

이번 공연은 ‘클라비포에지 : 간반으로 쓰는 시’라는 주제로, 마치 한편의 시처럼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겨줄 감미롭고 아름다운 선율의 작품들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이일영기자 leey@jeonmae.co.kr

양양군, 주말 체육행사 풍성

강원 양양군에서 이번 주말 체육행사가 잇따라 열려 전국 및 지역 체육 동호인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화합을 다지는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우선 제1회 양양군체육회장배 유소년 농구대회가 19일부터 20일 이틀간 양양 국민체육센터 등 관내 농구장 3곳에서 열려 전국 유소년농구 40개팀 300여명이 참가해 유소년들이 그간 갈고닦았던 실력을 뽐낼 예정이다.

또한 제2회 양양군협회장배 동호인 테니스대회도 19일부터 20일 이틀간 양양 테니스장에서 열린다. 지역 테니스 동호인 2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대회 첫날에는 단체전, 이튿날에는 개인전 치러질 예정이다. 양양/ 박병기기자 parksh-MK@jeonmae.co.kr

경기 안양시가 신속항원진단키트 제조기업 ‘휴마시스’를 유치하며 민선 8기 핵심공약인 우수 첨단기업 유치 및 성장동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시는 휴마시스가 내년 하반기에 안양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로서유을 이전한다고 밝혔다.

휴마시스는 최근 업무공간 및 연구시설 확충과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평촌역 인근

빌딩을 400억 원에 매입했다. 이를 통해 군포, 의왕 등에 흩어진 시설을 안양에 생김신사옥으로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휴마시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급성장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들어서며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442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 매출(321.8억 원)을 넘어섰으며 내년도 안양 내 매출 1위 기업이 될 예정이다.

휴마시스 사옥 내년 하반기 이전 최대호 시장 ‘지원 아끼지 않을것’

휴마시스는 사업의 급속한 확대에 따라 주사업장을 교통 및 인프라의 요지인 시로 이전하는 것을 희망해왔다. 시는 이에 협조를 위해 관내 대학과 특성화고 연계도 구상하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우수한 첨단기업 유치를 민선 8기 공약의 핵심이자 시의 성장동력이며 4차산업 핵심 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초석

평촌스마트스퀘어 입주를 이끌어냈다.

이때마다 시는 이번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방세 수입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바이오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관내 대학과 특성화고 연계도 구상하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우수한 첨단기업 유치를 민선 8기 공약의 핵심이자 시의 성장동력이며 4차산업 핵심 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초석

이 될 것”이라며 “휴마시스의 안양 이전은 시의 적극적인 기업 유치 활동의 결과로 앞으로도 안양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휴마시스 기업 유치를 시작으로 기업 하기 좋은 도시, 기업이 성장하는 도시로 조성하고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을 확대해 계획이다.

안양/ 배진석기자 baejs@jeonmae.co.kr



경기 광주시, 고산지구 문화누리센터 첫삽

경기 광주시는 전월 고산동 340 일원에서 ‘고산지구 문화누리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센터는 광주시 고산동 340-10 부지면적 3624㎡, 연면적 8236㎡,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로 총사업비 326억 원을 들여 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돌봄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방 시장은 “이번 건립을 통해 오모1동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오모1동의 문화생활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 광주시, 고산지구 문화누리센터 착공식

경기 광주시는 전월 고산동 340 일원에서 ‘고산지구 문화누리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센터는 광주시 고산동 340-10 부지면적 3624㎡, 연면적 8236㎡,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로 총사업비 326억 원을 들여 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돌봄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방 시장은 “이번 건립을 통해 오모1동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오모1동의 문화생활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 이만호기자 leemh@jeonmae.co.kr

철원군, 지난달 관광객 93만명 돌파 ‘인기상승’

전년 동기 대비 누적 방문자수 23%↑·SNS 언급량도 증가

강원 철원군 방문자수가 지난달 한달에 만 9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군에 따르면 한국관광데이터랩 통계 분석한 결과 지난달 군 방문자수는 93만명으로 전년 같은달 58만명 대비 60%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지난월까지 누적방문자수도 612만명으로 전년(498만명) 대비 23%가 늘어났으며 고석정꽃밭과 가을 단풍을 구경하기 위한 주상절리길에 인파가 몰린 것으로 군은 분석했다.

철원의 핫플레이스로는 지난해 이어 고석정이 1위를 차지했으며 철원한탄강주상절리길(6위)이 새롭게 키워드에 등장했다. 주상절리길의 시작점인 순담계곡을 비롯해 은하수고, 직랑폭포 등 한탄강을 중심으로 한 관광지의 인지도가 높았다.

SNS에서 ‘철원’에 대한 언급량도 전년 대비 3018건에서 1만2377건으로 212% 증가했다.

군 관계자는 “철원 인기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이 늘어나는 등 유동인구의 증가가 지역 상권이 회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겨울에도 철원에서만 즐길 수 있는 물윗길 등 특색있는 관광지과 얼음트레킹 축제가 인기를 끌며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철원/ 지방복지자 jmb123@jeonmae.co.kr

2회 추경서 사업비 1억8000만원 확보 고시목 제거·나무주사 집중 등 실시

영목은 모두 제거하고 주변의 건강한 소나무에는 예방 나무주사를 넣는 선제적 조치와 함께 예찰 및 방제지 모니터링을 지속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도 소나무류 불법 이동과 무허가 방제, 잣나무 임지 내 잣취 등의 행위를 자제해 주길 바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도 소나무류 불법 이동과 무허가 방제, 잣나무 임지 내 잣취 등의 행위를 자제해 주길 바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도 소나무류 불법 이동과 무허가 방제, 잣나무 임지 내 잣취 등의 행위를 자제해 주길 바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도 소나무류 불법 이동과 무허가 방제, 잣나무 임지 내 잣취 등의 행위를 자제해 주길 바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도 소나무류 불법 이동과 무허가 방제, 잣나무 임지 내 잣취 등의 행위를 자제해 주길 바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도 소나무류 불법 이동과 무허가 방제, 잣나무 임지 내 잣취 등의 행위를 자제해 주길 바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도 소나무류 불법 이동과 무허가 방제, 잣나무 임지 내 잣취 등의 행위를 자제해 주길 바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도 소나무류 불법 이동과 무허가 방제, 잣나무 임지 내 잣취 등의 행위를 자제해 주길 바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도 소나무류 불법 이동과 무허가 방제, 잣나무 임지 내 잣취 등의 행위를 자제해 주길 바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도 소나무류 불법 이동과 무허가 방제, 잣나무 임지 내 잣취 등의 행위를 자제해 주길 바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도 소나무류 불법 이동과 무허가 방제, 잣나무 임지 내 잣취 등의 행위를 자제해 주길 바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도 소나무류 불법 이동과 무허가 방제, 잣나무 임지 내 잣취 등의 행위를 자제해 주길 바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도 소나무류 불법 이동과 무허가 방제, 잣나무 임지 내 잣취 등의 행위를 자제해 주길 바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도 소나무류 불법 이동과 무허가 방제, 잣나무 임지 내 잣취 등의 행위를 자제해 주길 바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도 소나무류 불법 이동과 무허가 방제, 잣나무 임지 내 잣취 등의 행위를 자제해 주길 바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도 소나무류 불법 이동과 무허가 방제, 잣나무 임지 내 잣취 등의 행위를 자제해 주길 바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도 소나무류 불법 이동과 무허가 방제, 잣나무 임지 내 잣취 등의 행위를 자제해 주길 바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도 소나무류 불법 이동과 무허가 방제, 잣나무 임지 내 잣취 등의 행위를 자제해 주길 바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도 소나무류 불법 이동과 무허가 방제, 잣나무 임지 내 잣취 등의 행위를 자제해 주길 바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철원 인기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이 늘어나는 등 유동인구의 증가가 지역 상권이 회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겨울에도 철원에서만 즐길 수 있는 물윗길 등 특색있는 관광지과 얼음트레킹 축제가 인기를 끌며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철원/ 지방복지자 jmb123@jeonmae.co.kr

철원/ 지방복지자 jmb123@jeonmae.co.kr

철원/ 지방복지자 jmb123@jeonmae.co.kr

철원/ 지방복지자 jmb123@jeonmae.co.kr

철원/ 지방복지자 jmb123@jeonmae.co.kr

철원/ 지방복지자 jmb123@jeonmae.co.kr

철원/ 지방복지자 jmb123@jeonmae.co.kr

철원/ 지방복지자 jmb123@jeonmae.co.kr

철원/ 지방복지자 jmb123@jeonmae.co.kr

철원/ 지방복지자 jmb123@jeonmae.co.kr

철원/ 지방복지자 jmb123@jeonmae.co.kr

철원/ 지방복지자 jmb123@jeonmae.co.kr

철원/ 지방복지자 jmb123@jeonmae.co.kr

철원/ 지방복지자 jmb123@jeonmae.co.kr

철원/ 지방복지자 jmb123@jeonmae.co.kr

철원/ 지방복지자 jmb123@jeonmae.co.kr

철원/ 지방복지자 jmb123@jeonmae.co.kr

철원/ 지방복지자 jmb123@jeonmae.co.kr

철원/ 지방복지자 jmb123@jeonmae.co.kr

철원/ 지방복지자 jmb123@jeonmae.co.kr



‘2022 강원도 새마을지도자 대회’가 17일 정선 아리랑센터에서 개최됐다.

정선서 ‘강원도 새마을지도자 대회’ 성료

활동 영상 상영·표창 수여식 등 다채

‘2022 강원도 새마을지도자 대회’가 17일 정선 아리랑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18개 시·군 회장단 및 가족 등 1000여명의 회원들이 자리를 갈아탔다.

이번 행사는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의 정선아리랑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강원도 새마을운동 실천 활동 영상 상영, 새마을운동 유공자 포상, 대화사, 격려사, 축사, 환영사, 2023 강원새마을운동 실천 다짐 결의문 낭독 새마을노래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표창 수여식에서는 새마을운동에 앞장서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써 온 박형배 강원도새마을회장을 비롯한 조경하 새마을지도자 강원연합회회장, 김학순 정선군새마을부회장이 새마을훈장을 수여받았다.

정선/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보령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순항

생활인구 확대·정착 지원 최선

충남 보령시는 오는 21일부터 법무부에 하하고 직접 보령시 청년 커뮤니티센터에 방문하여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의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우수한 외국인의 지역 내 정착 유도를 위해 법무부에서 공모한 사업으로 시는 지난 9월 사업대상자로 선정됐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및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인 신청 자격을 갖추면 심사를 통해 지역 거주 특혜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보령의 배정 인원은 7명으로 특정 국가 외국인이 배정 인원의 50%를 넘길 수 없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고시 기

속초시, 정관·공공디자인 종합계획 수립 ‘착착’

정주여권 향상 등 발전 기틀 마련

강원 속초시가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아름다운 속초 도시건설을 위해 역사, 문화, 자연경관 자원 등 경관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경관자원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는 경관관리 기본 틀과 도시 시설물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디자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5억 원의 예산으로 18개

준 제조업에만 취업이 가능하다.

참여 방법은 외국인 자신이 신청서류를 구비하고 직접 보령시 청년 커뮤니티센터에 방문하여 10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추천대상자 선정은 하기와 같은 최소 2년은 보령에 살거주하고 자력취득 후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거주와 근무하는 조건으로 인원 총액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시는 외국인 채용 희망 기업 현황자료 제공과 향후 외국인 간 네트워킹 지원, 문화체험 및 정서 지원을 위한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해 외국인들이 초기 정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동일 시장은 “외국인 인재들의 유입뿐만 아니라 지역 정착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령/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보령/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보령/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보령/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보령/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보령/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보령/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보령/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보령/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제26회 우리사이 그림전 개최

충남 보령시는 19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일주일간 문화의 전당 기획전실에서 '제26회 우리사이 그림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우리사이 그림전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지역 미술인의 창작의욕 고취와 미술 화 발전, 작가의 자질향상을 위해 지난 1985년 창립전을 시작으로 매년 전시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 전시회에서는 김부권 작가의 '공간속의 생', 김윤식 작가의 '빛이나라', 박주남 작가의 'BE IN HERE!' 등 작가 23인의 작품 45점을 전시한다. 이재현 화가는 "소스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되는 일을 자주 찾을 때 비로소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며 "많은 분이 오셔서 감성을 깨우는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동일 시장은 "시민들이 이번 전시회에서 다양한 작품을 관람하며 마음의 평안과 휴식을 얻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령/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이동학대예방 주간 운영

강원 속초시는 19일 세계이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NO HIT ZONE' 확산과 가정 양육 실천에 대한 범시민적 관심 제고를 위해 이동학대 예방주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예방주간에는 속초경찰서와 속초양양교육지원청, 보호관찰소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한 이동학대예방 다짐 릴레이 영상과 '체벌이 아닌, 사랑의 손을 함께 들어주세요'라는 주제가 담긴 가정 양육 자료를 시 지역에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시 아동보호팀이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과 버스정보시스템, 미세먼지 정보알림 전광판, 각 기관 홈페이지와 SNS 등 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22일에는 속초시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동학대 징후 발견 시 행동 요령과 신고 방법을 강조한 이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속초/윤택훈기자 youth@jeonmae.co.kr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강원 정선군이 오는 23일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군청 대회의실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 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 중심 고충 민원 해결 서비스다. 이날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은 고충민원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상담 분야는 전 행정분야 및 부패신고, 행정심판, 사회복지(제도권 밖 비수급 취약계층), 소비자피해 구제, 법률상담(민·형사, 생활법률), 지적(地籍) 분쟁, 노동관계 등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이뤄진다. 상담 중 해결이 가능한 고충과 문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 민원으로 접수, 조사를 거쳐 처리된다. 서건희 기획관은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평소 생활 불편과 애로사항으로 고충을 겪는 국민 고충민을 해결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정선/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천안시, 예산 3조 시대 '활짝'

충남 천안시가 연간재정 3조원 시대를 사상 처음으로 열었다. 17일 시는 올해 최종예산 3조1050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일반회계는 1180억원이 증가한 2조4480억원, 특별회계는 570억원이 증가한 6570억원으로 계상됐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지방교부세 578억원, 세외수입 증가분 276억원, 지방세 증가분 105억원 등 세수 확충분을 반영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 주요 사업은 지방재정 111억원, 기초연금 96억원,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

제3회 추경 3조1050억 편성 민생경제 회복·추진사업 중점

원 61억원, 국내복귀투자보조 52억원, 새생중·신도보래뉴(아)간 도시계획도로개설 45억원, 금북정맥(목천) 생태축 복원사업 38억원, 장산지구 개선복구사업 36억원, 천안반디비체육관 건립 32억원 등이다. 시는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이면서 건전재정 지속 실천과 민생경제 회복에 무게를 두고 추진사업의 안정적 마무리와 계속사업의 연결고리 재원을 전라적으로 재분배해 예산을 최종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는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으로 2조원대 예산을 편성한 이래 3년 만에 3조원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시는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체 재원 확충과 더불어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 팔진 노력 등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제2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의 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이명열 예산법무과장은 "여러가지 불확실성 속에서 세수확충 노력과 정부예산 확보 증대에 힘입어 3조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며 "시민 모두가 행복한 천안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재정적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안/박종환기자 pjh@jeonmae.co.kr



양평군, 문화·체육·관광분야 '사통팔달 간담회' 눈길

경기 양평군이 전날 보훈회관 다목적실에서 문화·체육·관광분야에 대한 '사통팔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통팔달 간담회는 '사회단체와 소통하는 민선 8월' 정기간담회의 약자로 지난 8월에는 전체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9월에는 사회복지분야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했고 이번 간담회는 맞아 관내 문화·관광·체육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단체장 및 회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진선 군수는 "민선 8기가 추구하는 '사람과 자연, 행복한 양평'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관내 곳곳에서 활동하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단체 회원 여러분과의 소통창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경기 양평군이 전날 보훈회관 다목적실에서 문화·체육·관광분야에 대한 '사통팔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평가반이 이번이 최종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제안활성화 유공공무원(상송2동 김보희 주무관) 또한 국무총리상을 수상해 우수기관과 유공공무원 평가 모두 국무총리상에 선정되는 경이사를 이뤄냈다. 이처럼 동일 기관이 우수기관과 유공공무원에 선정되는 것은 드문 사례다.

양평/홍문식기자 hongme@jeonmae.co.kr

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남달랐다

행안부 평가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유공공무원도 국무총리 표창 수상

경기 고양시가 제안제도를 적극 운영해 찬사를 받고 있다. 시는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국무총리상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전국최초 제안심사 기능을 탑재한 제안제도 통합플랫폼 '제안키움'을 활용한 체계적 제안 관리, 제안 발굴·육성·교육 등 제안제도 운영의 모든 절차 완비, 청소년 제안장소·중부대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적극적 제안발굴을 늘

이혜(시민제안, 이경혜 남)'와 제철작업장 활용 폐블록을 적재해 필요한 시민에게 제공하는 '순환경제 시대, 시와 함께하는 재활용 폐블록 시민무상 제공(공무원제안, 관광과 김성수 팀장·행정지원과 강다영 주무관)' 총 2건이다. 시 관계자는 "제안을 정책으로 반영해 주는 담당공무원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제안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제안제도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8월 제안제도 통합플랫폼 '제안키움'을 구축했으며 현행 수기방식으로 운영하던 모든 과정을 디지털 방식으로 운영해 효율성을 대폭 개선했다. 고양/임철일기자 imi@jeonmae.co.kr



강원 정선군산림조합은 정선군드레 음식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강원신문 제공>

정선군산림조합, 정선군드레 음식 체험프로그램 호응

강원 정선군산림조합은 정선군드레 음식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 체험프로그램은 정선을 대표하는 향토 먹거리이자 임산물인 군드레의 인지도 향상과 소비촉진 및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정선군드레를 활용한 음식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 군드레를 활용한 음식을 만들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조합은 정선군드레 명품관에서 군민 및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군드레 요리 전문 강사를 초빙해 정선에서 생산되는 군드레를 활용해 김밥 및 빼빼로를 만들어 시식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와함께 조합은 정선군드레 생산, 가공, 상품화, 관광 등 융복합산업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이 믿고 구입할 수 있는 군드레 수급창과 정선군드레 명품 브랜드화를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군산림조합에서는 지난 2019년 임산물유명센터에 부지면적 1089㎡, 건축면적 499.62㎡ 이상 2층 규모에 임산물 요리 체험장, 임산물 직매장, 교육실, 카페, 회의실, 사무실 등을 갖춘 정선군드레 명품관을 개관·운영하고 있다. 정선/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부천시, 들락날락 1호점서 '시민정책 공감토크' 호응

부천시는 17일 시청사 1층 로비 어린이 북림문화공간 '들락날락' 1호점에서 '시민정책 공감토크-들락날락 편'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더 많은 시민에게 '들락날락'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시민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행사는 사전에 초청한 부모와 어린이 20여명이 참여했으며 시 공식 유튜브 '부산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 됐다. 특히 이날 토크쇼에는 부천시 소통 캐릭터 '부기'가 참석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들락날락'을 설명하며 시는 현장과 유튜브 댓글을 통해 제시된 시민 의견을 적극

적으로 수렴해 앞으로의 들락날락 조성사업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다. 하승민 시 뉴미디어담당관은 "어린이북림문화공간 '들락날락'의 이름 그대로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매일 '들락날락'할 수 있도록 솔직한 시민 의견을 가감 없이 들었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시민이 소통하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정책 참여 기회를 적극적으로 넓혀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들락날락' 조성사업은 박형준 시장의 주요 공약사업 중 하나로 15분 생활권 도시 실현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부산 시내에 총 300곳을 조성할 예정이다. 부산/정대영기자 jdy@jeonmae.co.kr

이천시, 새로운 이천 위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완료

경기 이천시는 전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4차 이천시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새로운 이천을 위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앞으로 4년간 추진될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첫해인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 보장계획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10가

지 사회보장영역에 대해 중앙 부처의 사회보장제도 외 지역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지자체 단위 보장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사회보장급여법 제36조에 의거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며 4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 및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됐다. 이천/지원배기자 wonB456@jeonmae.co.kr

전국매일신문 탄소중립 실천캠페인

습기로운 탄소중립 생활

지구를 지키는 환경실천, 함께 동참해 주세요!

탄소중립은 사람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로 2050년까지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을 '0'이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분리수거

재활용이 가능한 캔, 유리, 페트 등 분리배출하기

에너지 절약

사용하지 않은 플러그는 뽑아 사용 대기전력 차단

대중교통이용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이용, 대중교통 이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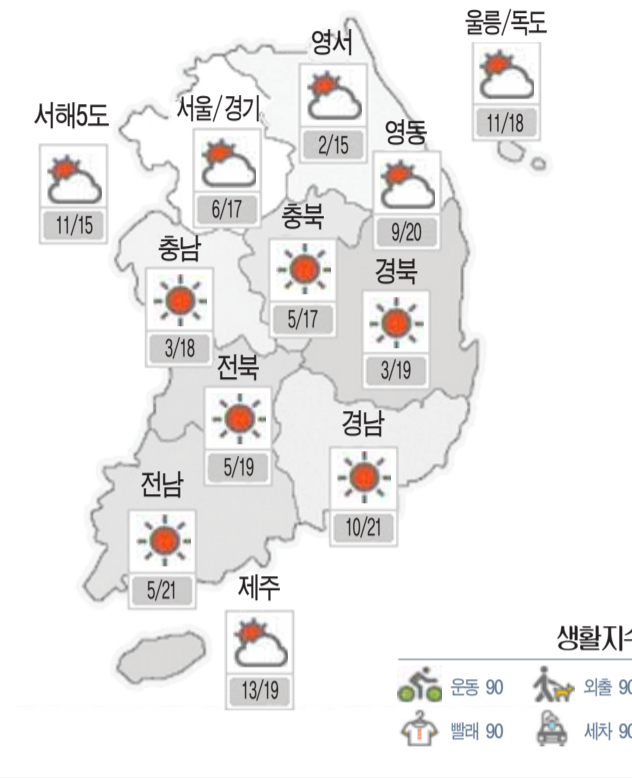
나무심기

기념일 또는 식목일에 나무를 심어 뜻깊은 날 만들기

ECO

오늘의 날씨 경기남부·충청 미세먼지 '나쁨'

18일은 중부지방과 제주도에 가끔 구름이 많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10도, 낮 최고기온은 15~21도로 예보됐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국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경기 남부·충북·충남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서울·인천·경기 북부·대전·세종·대구·경북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대학 기숙사 불공정 약관 운영 다반사

일부 대학 기숙사들이 불공정한 약관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26개 대학 기숙사 사업자의 약관을 직권조사해 학생의 권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조항을 가진 시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환불·벌칙 조항 등을 변경할 때 1~3일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학생들이 인지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둔 곳이 13곳으로 가장 많았다.

또 관리비 등 정산금을 퇴사 후 곧바로 지급하지 않고 지연 반환하거나(11곳),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자가 결정한다고 규정한 조항(8곳), 개인 기숙사에 남기고 간 물품을 임의 처분할 수 있도록 한 조항(6곳) 등도 적발됐다. 기숙사 점검이 필요하면 사전 안내 없이 학생이 없는 개인 호실을 불시에 출입할 수 있게 한 조항(4곳)과 중도 퇴사 시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조항(3

곳)을 둔 곳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학기 절반이 지난 후 기숙사를 퇴사하면 잔여기간이 두세 달 남았는데도 기숙사비를 환불해주지 않거나 규정 위반으로 강제 퇴사 당한

학생의 기숙사비를 환불해주지 않는 경우 등이다. 대학 기숙사는 저렴한 비용, 접근 편리성, 제한적인 수용 인원 등으로 입소 경쟁이 치열하다. 올해 4월 기준 전국 478개 대학교 중 336개교가 기숙사를 운영 중이지만 수용률(재학생 수 대비 수용인원)은 22.7%에 그친다. 입소를 원하는 학생들은 기숙사가 공동생활 규율과 행정 편의만을 강조

하는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거부하기 어렵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사전 안내 없이 개인 호실에 출입하도록 한 조항은 사생활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점검은 학생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원칙이고 불가피한 경우 비어있는 호실의 점검 사유와 절차를 약관에 기재하고 점검 사실을 시수에 통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안전한국 합동소방훈련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은 전남 목포소방서와 합동으로 2022년 안전한국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합동소방훈련에서는 목포소방서 오치보 소방방 등 소방관들이 실제 화재 상황에서의 옥내 소화전 및 소화기 사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시범을 보여 직원들의 화재 대응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권상용기자

파주시, 생활쓰레기 거점배출시설 6곳 설치

경기 파주시는 생활쓰레기 거점배출시설 6개소를 설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단독주택 거점 배출장소 외에 운영 자동화시설 투입구 주변도 대상으로 추진했다.

특히 운영 자동화시설 주변에는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배출할 수 있도록 구획했으며, 단독주택 지역 거점배출시설은 종량제봉투, 재활용품, 대형폐기물로 구분해 시민들이 재활용품을 쉽게 구분해 배출할 수 있도록 했다. 박준태 자원순환과장은 "앞으로도 거점배출시설 설치를 통해 지역의 환경 개선과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문화를 조성하고 분리배출을 통해 자원 재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파주/ 임철일기자 imci@jeonmae.co.kr

보령 힐링콘서트 with 로맨틱보이스 24일에

충남 보령시는 오는 24일 '보령 힐링콘서트 with 로맨틱보이스'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공연에는 알앤비 발라드 듀오 '김구봉구'와 대한민국 대표 모던 록 밴드 '브로콜리너마저', 아쿠스틱 음악의 대표주자 '스탠딩 예그'가 출연한다. 김구봉구는 2013년에 데뷔한 감성 보컬 듀오로 '비림이 불었으면 좋겠어', '이 별', '너 하나야' 등 히트곡으로 음원 차트에서 존재감을 입증했다. 브로콜리너머는 2007년에 데뷔한 3인조 모던록 밴드로 앨범 '앵콜요청 급지'를 통해 대중에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스탠딩 예그는 아쿠스틱 음악의 대표주자로 '역도요정 김복주', '함께여자 도봉순' 등 다수의 OST에 참여한 등 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공연 예매는 23일 오후 6시부터 보령문화예술회관 누리집과 현장에서 할 수 있으며 24일 공연 당일에는 현장 예매만 가능하다. 보령/ 이진영기자 leegy@jeonmae.co.kr

경북교육청, 저학년 문해력·수리력 향상 자료 보급

경북교육청은 저학년 문해력 및 수리력 향상을 위한 학생용 자료를 보급했다고 17일 밝혔다. '찬란한글'은 한글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의 한글 해독 학습을 돕는 자료로 모음과 자음부터 복잡한 단어 읽기까지 단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함께 학습지'는 '똑똑! 수학탐험대'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학습지로 수학교과 보충학습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학교 수요에 따라 '찬란한글'은 281교에 2000부, 똑똑! 수학탐험대 '함께 학습지'는 283교에 2만4000부를 보급했다. 해당 자료는 기초학력오류학교, 우리 반 희망 사다리 교실, 기초학력 선도 학교 등을 통해 학생 지도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김희수 유초등교육과장은 "이번 지도 자료 보급을 통해 학생들의 기초학력 문해력 및 수리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학교에서 맞춤형으로 학생 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삼척시,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강원 삼척시는 지난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2022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책기간에는 부시장을 총괄로 20개 부서 30명의 협업가능별 대책반(T/F)을 구성·운영해 분야별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세부적으로 과학적 분석으로 즉각적이고 빈틈없는 상황대처, 현장의 재난대응 기관·기능별 소통으로 협업 강화, 상습결빙구간 등 집중관리 및 취약계층 관리 강화, 지역별, 도로별 특성을 반영한 대응체계 확립, 재난관리 자원 사전확보 및 긴급지원체계 확립, 다매체 활용 홍보 강화 및 자발적 제설 참여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신속하게 재난정보를 제공하며 대설·한파로 인한 겨울철 자연재난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가구별 수도 등과 대비 및 방지대책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삼척/ 김홍식기자 kimhs@jeonmae.co.kr

경기도, 축구장 3배 규모 산지 훼손 53건 적발

산지를 무단 훼손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훼손 면적은 2만 721㎡로 축구장 면적의 약 3배에 이른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항공 사진으로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300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53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23건, 주차장 불법 조성 17건, 농경지 불법 조성 5건, 기타 임야 훼손 7건 등 산지관리법 위반 52건과 자연공원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시설물 설치 1건이다. 김민경 단장은 "산림과 자연공원 내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영민기자 han-ym@jeonmae.co.kr

예산군 예당호 모노레일, 관광객 유입 역할 '톡톡'

한달간 3만5266명 탑승...걷기 불편한 어르신·유아 동반 단체 등 호응

충남 예산군이 지난달 8일 개통한 예당호 모노레일의 1개월간 운영을 분석한 결과 관광객 증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개월간 총 탑승인원은 3만5266명으로 성인 2만9802명(83.9%), 청소년 5199명(13.6%), 어린이 4822명(13.6%), 기타 349명(1.0%)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65세 이상은 7495명(21.2%)으로 집계됐다. 특히 걷기 불편한 어르신 및 유아 동반 단체와 가족 여행객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이 모노레일은 오전 9시부터 매시간 정각에 30분 단위로 평일 2대(12분 간격), 주말 3대(8분 간격)를 운행하고 있으며 탑승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간대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통틀어 2월까지의 저녁 8시까지 운행한다. 또한 야간 운행 탑승인원은 총 3527명(10%)으로 모노레일 야간경관조명 및 출렁다리 경관조명과 음악분수, 레이저 쇼 등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해 큰 인기를 끈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예당호 인근 카페, 음식점, 대중교통 이용객 수도 증가하는 등 야간관광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 예산/ 이훈택기자 chntee@jeonmae.co.kr



충남 예산군이 지난달 8일 개통한 예당호 모노레일을 3만 5266명 찾으며 관광객 증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예산=김재>

“경북교육청 금요일 출장 과다”

손희권 경북도의원(국민의힘·포항)은 전남 제336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경북교육청 직원들의 금요일 관외출장이 과다하다고 17일 밝혔다. 손 의원에 따르면 출장종류일을 기준으로 경북교육청의 지난 5년간 요일별 출장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총 4만 5096건 가운데 각 요일별 출장건수는 월(5086건, 11.2%), 화(7232건, 16.0%), 수(8188건, 18.2%), 목(7966건, 17.6%)이며 금(1만1605건, 25.7%)로 나타났으며 금요일 출장 비중이 과도하게 높았다. 금요일 출장 1만1605건에 대해 출장 시작일을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금요일 당일 출장이 8346건, 목~금요일(1박2일)은 1779건, 수~금요일(2박3일)은 620건, 화~금요일은 448건, 월~금요일은 357건, 일~금요일은 51건, 토~금요일은 2건이었다. 부서를 순회별로 보면 시설과(4792건

중 1273건, 창의인재과(5094건 중 1231건), 총무과(4364건 중 917건) 순이다. 손 의원은 금요일 출장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워라밸 등 금요일 휴가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관내 출장까지 고려해 보면 사실상 금요일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 각 교육지원청에는 행복학교거점센터 등 직접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들도 있는 만큼 금요일 출장으로 인한 민원 불편,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경북/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안양시 동안구,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안양시 동안구,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이번 합동단속으로 소음 덮개 탈거, 불법 개조 등 총 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단속 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이종근 구청장은 "이륜차 불법행위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환경이 방해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깨끗하고 안전한 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 배진석기자 baesj@jeonmae.co.kr

세종교육청, 수능 후 청소년 생활지도 강화

학생 안전 특별기간 지정·운영 세종교육청은 17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수능 이후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지정·운영한다. 이 기간동안 각급학교는 수능 이후 자체 교내 생활지도 운영 계획을 수립해 연말까지 학생 생활지도도 강화한다. 수능을 마친 고3 학생을 대상으로 건전한 여가생활을 권장하며 학생 일탈을 방지하고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 및 생활지도도 강화한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학교폭력 및 음주, 흡연, 약물 오남용 예방 등 학생 보호 활동 추진으로 학생 생활교육을 지원한다. 또한 경찰서, 시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다중이용시설 및 청소년 유해환경을 집중 점검한다. 이날 중 시청,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학생 생활지도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PC방, 스타벅스캐페 등 청소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수시 점검을 실시해 코로나19 방역 활동에도 나선다. 입주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 미성년자 출입 제한 업소에 대한 신분증 확인 협조를 요청하고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점검 및 취약 지구 순회 등을 통해 학교폭력 및 학생 비행을 예방할 계획이다. 김동호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을 통해 학교폭력 및 학생 비행을 예방하고 수능 이후 취약 시기에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 청소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유양준기자 yjyou@jeonmae.co.kr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최근 교통경찰 협력단체들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하반기 '통통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일산서부경찰서=김재>

일산서부경찰, 협력단체, 교통사고 예방 협력 논의

'통통통 간담회' 개최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통통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간담회는 교통경찰·의사소통·안전소통을 하겠다는 의미로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정기적으로 교통경찰 협력단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올해 코로나19 가려져가 해체되면서 각종 모함과 불법이 등 야외활동 증가로 교통사고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협력단체들과 함께 교통안전 시설, 교통 캠페인, 교통단속 방화 등 교통사고 예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동/ 임철일기자 imci@jeonmae.co.kr

금산군, 현업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행

PRR·한랭질환 예방 등 교육 충남 금산군은 전남 금산대리원 대공연장에서 소속 현업근로자를 대상으로 4분기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현업 근무자가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보건 지식 습득 및 대처능력 향상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보건·건강 환경이 증진될 수 있도록 추진된다. 보건 분야 교육에서는 CPR(심폐소생술) 실습, 동절기 작업 시 한랭질환 예방 등 교육이 진행됐다. 또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사)대한산업안전문화연구원 원종순 이사가 사업장 유해 위험요소 제거방안 사례 등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근로자 안전의식을 고취 시켰다. 이외에도 최근 발생하고 있는 사회·자연재난에 대한 안전사고 대응법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금산/ 황신성기자 m04570@jeonmae.co.kr

양양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포상제 우수기관 선정

충남 금산군, 현업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행 강원 양양군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포상제 우수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18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상'을 수상한다. '청소년포상제'는 환경정화 봉사활동, 유도·음악출발기 신체단련 활동, 요리 자기개발활동, 삼척 환선골 풀꽃달림활동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운영하며 청소년들이 재능을 발견하고 자기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해 나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동장·은장·금장 운영 단계를 두고 있는데 군청청소년수련관은 올 한 해 동안 '동장' 2개 프로그램과 '금장' 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동장' 프로그램으로는 환경정화 봉사활동, 유도·음악출발기 신체단련 활동, 요리 자기개발활동, 삼척 환선골 풀꽃달림활동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운영하며 청소년들이 재능을 발견하고 자기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해 나가고 있다. 양양/ 박명기기자 parksh-mk@jeonmae.co.kr

여중생 동의 없이 성관계한 남고생...법원 "학교 폭력"



판결

여중생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억지로 성관계를 한 남자 고등학생이 학교 폭력으로 징계를 받아 교육 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학교폭력 한 유형 피해 학생 거짓진술 할 특별한 동기 없어"

인천지법 행정1-3부는 이 인건시 모교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 폭력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군의 친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은 (징계) 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징계 처분 사유와 부당한 진술을 했다"며 "A군의 일방적인 성관계 요구를 적극적으로 거절하지 못한 피해 학생의 사유도 납득하지 못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A군과 B양이 성관계 후 나눈 SNS 대화를 보면 피해 학생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피해 학생이 거짓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도 찾지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A군은 피해 학생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하고도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했다"며 "(징계) 심의위원회의 판단과 조치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너무 가혹해) 비례 원칙을 위반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연남뉴스/ 손현규기자

경기도의회 의정 홍보 소식지 중복발송·반송 반복 '예산낭비'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의정 홍보 소식지가 중복 발송 및 반송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예산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철저한 사후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17일 의회사무처 및 소통협력국, 중앙협력본부에 대한 종합 행정사무감사를 가졌다.

첫 질의에 나선 지미연 의원(용인)은 "의회소식지가 계속 반송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강하게 다그치며 "반송이후는 어떤 사후 절차를 추진하는가" 추궁했다.

또 "계속되는 중복 발송과 이로 인한 월세 낭비에 대한 책임추궁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일성했다. 안광철 의원(시흥)은 최근 발생한 경기도 공무원의 화장실 몰카 사건과 관련해 "이로써 두번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방비책을 수립해야 할 것"

도의회 운영위, 사무처 등 해당 개방직 사무처장직제 전환 놓고 사무처-의원간 소통 부재 논란

이러 "경기도의회 신청사 건물에 임대 장소가 너무 많다. 의회 사무실도 협소하니 의회가 자체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파주)은 계획중인 개방직 사무처장 임용계획과 관련해 "의회 운영위원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는가"라고 질책했다. 남중섭 의원(용인)도 "인사권이 의회로 넘어왔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기가 어렵다"며 "2급인 사무처장 아래에 3급직을 신설해야 하는데 제대로 진행중인가"라고 따졌다. 김민호 의원(양주)

은 "의회 사무처가 의원들을 귀찮아 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직업공무원과 개방직 공무원의 차이가 뭐냐"라고 질의했다. 황대호 의원(수원)은 "사무처장의 발언중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개방직 처장직의로의 전환은 반대하지만'이라는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답변에 나선 이계삼 도의회 사무처장은 "중복발송은 발송과 반송 반복되는 의정홍보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원인 분석해 향후 그런 사례를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회 사무처장직의 개방형 전환과 관련해서는 "의원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통한 점은 인정한다"며 "더 많은 의원들과 소통 후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영민기자 han-ym@jeonmae.co.kr



경기도 광역버스 오늘부터 '입석 승차 중단' KD송송그룹 계열 경기지역 13개 버스업체가 예고한 '입석 승차 중단'을 하루 앞둔 17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버스 차고지 버스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경기도북부소방, 위법 철물·건재 판매소 8곳 적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최근 기획단속을 추진, 허가받지 않고 고체연료 등의 위험물을 저장·판매한 철물·건재 판매소 8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 주요사항은 건축현장 보존 연료 무허가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 여부,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운반자 자격기준 준수 여부, 기타 소방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이었다.

그 결과 지정수량을 초과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업체 2곳을 적발해 행정입건했다.

또한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등을 위반해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업체 5곳, 소방시설 관리 부실한 업체 1곳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부했다.

고덕근 본부장은 "겨울철을 대비해 최근 화재가 잦은 대상에 대해 단속계획을 사전에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됐다"며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고 보관하는 위험물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관계자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정부/ 김진규기자 kig@jeonmae.co.kr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받아 대량 구매 불법환전 수익 쟁거

지역사랑상품권을 10% 할인된 금액에 대량 구매해 허위 가맹점 수십 곳을 통해 불법 환전해 수익원 상당 차액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잡혔다.

17일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씨 등 3명을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D씨를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불법 수법은 사실혼 또는 지인 관계인 A씨 등 4명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지역사랑상품권 10% 할인 판매 기간에 거제시와 고성군 일원에서 지인들로부터 기존 법인 14개 명의를 빌려

상품권을 대량 구입했다. 당시 A씨 일당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법인 명의로 구매할 때는 개인 명의로 살 때 (월 50만원)와는 달리 한도가 없다는 점을 노렸다. 이들은 대량 구입한 상품권을 이후 가족, 지인 등 명의로 등록·개설한 허위 가맹점 28곳을 통해 판매대행점에서 상품권 권면 금액으로 불법 환전받았다.

경찰이 허위 가맹점으로 등록된 주소지를 확인해본 결과 공실이거나 일반 가정집 등으로, 실제 물품 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 김현준기자 kimhj@jeonmae.co.kr

체육인 역량강화 워크숍 행사에 유력후보 2명 등 참석 편파 논란

강원 횡성군체육회가 내달 22일 군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제주도 일원에서 진행된 관내 체육인 역량강화 워크숍에 차기 군체육회장 유력 후보자 2명과 함께 투표권에 밀접한 인사들이 대다수 참석했다고 알려져 선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번 워크숍은 군 문화체육과에서 군민 협세 12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참가인원은

종목별협회장 11명, 체육회 임원 3명, 횡성군 체육회 4명, 문화체육과 2명 등이 20명이 참석, 직·간접적으로 체육회장 투표권 및 선거인단 구성에 영향력을 가진 이들이 대다수 포함돼 있다.

현재 군 체육회장 출마 예정자는 정명철 현 횡성군체육회장, 전기택 체육종목별 회장단협의회장, 박명서 전 군축구협회장으로 선거가 3파전 양상으로 이 중 정명철, 전기택 후보가 워크숍에 참석했다.

군체육회가 사전에 선관위를 통해 사전 선거 등 위법사항을 점검했다고는 하지만 워크숍에 참석하지 않은 예비 후보자에게는 기용어

진 운동장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군 선관위 및 문화체육과 관계자는 "갑자기 진행된 사항이 아닌 당초 미리 계획돼 있던 행사였다"며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공통된 주장으로 의혹을 일축했다.

이에 시인 K씨는 "당시 국가 애도기간이 끝난 직후였고 선거법에 위배가 되지 않아도 선거가 50여 일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경솔한 행사였다"고 비판하며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후보자는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편파 선거의 우려를 나타냈다.

홍성/ 김경태기자 kkt@jeonmae.co.kr

사건·사고

PC방서 흥친 카드로 명품 구매 10대 2명 검거

PC방에서 지갑을 흥친 10대들이 뒤쫓아온 피해자를 계단으로 밀쳐 다치게 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A군(18) 등 10대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전날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PC방 2곳에서 책상위에 놓여 있던 손님 지갑을 흥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군 등은 흥친 지갑에 들어있던 카드로 인근 백화점에서 156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200만원 상당의 명품 점퍼를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고는 받은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해 이날 오전 2시에 인천 한 지하차도에서 A군 등을 검거했다. 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인천/ 명창수기자 mchs@jeonmae.co.kr

생수 제조공장서 작업자 기계에 눌러 숨겨

경남 산청의 한 생수 제조공장에서 60대 작업자가 기계에 눌러 숨겨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6일 오전 9시 40분경 산청군 한 생수 제조공장에서 아래로 움직이던 적재기에 60대 작업자 A씨의 몸이 눌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적재기는 위아래로 움직이며 생수 묶음을 여러 단으로 쌓는 역할을 하는 기계다. A씨는 당시 적재기 주변으로 넘어진 생수통을 똑바로 세우려고 하다가 몸이 적재기 아래에 눌린 찰나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인근에 있던 다른 작업자 1명이 신고해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 수칙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산청/ 박종우기자 bjb@jeonmae.co.kr

'욕했다고'...매형에 흥기 휘둘러 외국인 체포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매형에게 흥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삼인미슈 혐의로 40대 중국인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에 김포시 통진읍 한 공장 기숙사 앞에서 매형인 50대 B씨에게 흥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외부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B씨로부터 욕설을 듣고 방 안에 있던 흥기를 쥘거 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목 부위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와 B씨는 인척 관계로 같은 공장에서 일하며 기숙사 생활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폭행을 당했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며 "추가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포/ 방민수기자 bangms@jeonmae.co.kr

세종특별자치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출청권 유치 성공

미래전략수도 세종과 39만 세종시민이 함께합니다

동정

후계농업경영인 화합대회
김동일 충남 보령시장은 18일 오전 11시 천수만 농어촌테마파크에서 열리는 한국 후계농업경영인 시연대회 화합대회에 참석.

중대재해예방 최종보고회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은 18일 오전 10시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리는 중대재해예방 종합안전진단 건설팅용어 최종보고회에 참석.

고형마실 한미당 축제
박경규 충남 아산시장은 18일 오전 10시 시청 상형실에서 진행되는 '삼척시 명예시장 유족상'에 참석.

명예시장 유족
박상수 강원 삼척시장은 18일 오전 11시 시청 상형실에서 진행되는 '삼척시 명예시장 유족상'에 참석.

바르게살기운동 충남도 회원대회
박범인 충남 금산군수는 18일 오후 1시 20분 금산종합체육관에서 열리는 바르게살기 운동 충남도 회원대회에 참석.

제305회 군의회 임사회
김기용 충남 서천군수는 18일 오전 10시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305회 군의회 임사회에 참석.

민족통일 충남도대회
최재주 충남 예산군수는 18일 오후 2시 문예회관에서 열리는 민족통일 충남도대회 및 제53회 한민족 통일문화제전 시상식에 참석.

정선장학회 이사회
최승준 강원 정선군수는 18일 오전 11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정선장학회 이사회에 참석.

보령시, 보령식품서 액젓 기탁 받아

충남 보령시는 최근 시청 광장에서 김동일 시장과 김재범 보령식품 영어조 합법인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저소득 가정용 액젓 기탁식을 가졌다.

이날 기탁된 액젓은 2000만 원 상당의 5kg 액젓 1500개로 시는 17개 읍면동, 출장소와 4개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분하기로 했다.

한편 보령식품은 HACCP 인증업체로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22회에 걸쳐 시에 1500만~2000만 원 상당의 액젓을 기탁하는 등 불우이웃을 위한 액젓 나눔 사업을 실천해오고 있다.

성남산업진흥원 '사랑기득 김장나눔' 실시

경기 성남시 산업진흥원은 최근 대조은 학부 모 봉사단과 함께 김장절을 맞아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기득 김장나눔' 사회공헌활동(사진)을 실시했다.

이날 3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여해 배추 300포기의 김장김치를 담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관내 저소득 가구에 전달했다.

진흥원은 소외계층에 보탬이 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김장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류해림 원장은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 연계한 여러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나눔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일영기자 leeyi@jeonmae.co.kr

오늘자 인사 및 부고는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안전관리 표준모델로 거듭날 것”

농관원 황규광 전남지원장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재인증 획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2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심사를 통과, 지난 2020년에 이어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농관원 전남지원 연구실은 농산물 등의 잔류농약 분석업무 수행하는 중앙전처리실과 기기분석실 2개 연구실로 이중 중앙전처리실은 지난 2020년 최우수인증 연구실로 선정된 바 있다.
또 농관원 전남지원은 올해 국가기관 최초로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호남권 권역기관으로 선정돼 타 기관 연구실안전관리 담당자들에게 안전환경 구축사례를 소개하고 우수연구실 인증심사 준비과정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농관원 전남지원이 최근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재인증’을 획득했다.



바르게살기운동 경기 성남시협의회가 최근 회원들간 단합과 화합을 위한 한마음대회를 가졌다.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 한마음대회... 화합·봉사정신 다짐

바르게살기운동 경기 성남시협의회가 최근 회원들간 단합과 화합을 위한 한마음대회를 가졌다. 이날 수장구 수진공원에서 열린 대회에서는 회원들이 수행해야 할 올바른 의식과 가치관을 확립하고 지도자로서의 자질향상, 참 봉사정신을 일깨우고 더 나은 봉사활동을 다짐했다.
성남시협의회 임원과 각종위원회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상진 성남시장, 박광순 성남시의장, 임기선 경기도의회 의원, 운영진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및 주요 내빈도 함께 했다.
신 시장은 화원 중 바르게살기운동 및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에 기여한 회원 6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또한 레크리에이션과 게임을 즐기고 초대

정선농협 농기주부모임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강원 정선농협 농기주부모임은 정선농협에서 17일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사진)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회원 30여명이 직접 생산하거나 NH농협 정선군지부 등 지역단체를 통해 기증 받은 배추 200포기로 정선김장김장김치를 담가 관내 경로당과 홀몸노인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에 50박스를 전달했다.
전금자 회장은 "앞으로도 어렵고 힘든 분들을 비롯해 정선읍민들을 위해 늘 애쓰려 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선/ 최명희기자 jhchoi@jeonmae.co.kr

여주시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 성황

윤창원 회장 “지원센터·상인회·상점가 등과 협력강화”

지역경제 활성화위해 소통·상생 앞장 다짐
경기 여주시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여주연합회)는 지난 여주연합회 회의실에서 ‘2022년 소상공인 날’ 기념식과 여주연합회 제4기 임원 임명표와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성황을 이뤘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여주연합회 제4기 고문, 부회장, 이사, 감사 등 임원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하고 코로나19 악조건속에서 소상공인들의 권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시상해 소상공인들의 사기를 북돋았다.
여주연합회 운영진 회장은 "앞으로 코로나19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맞이하는 전환기에 소상공인들과 여주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주연합회와 관내 각 상인회 및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과 소통과 상생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7월 정식 출범한 여주시소상공인지원센터를 매개로 소상공인들의 취약한 부분에 대한 교육과 행정지원 등 실질적이고 파급효과가 클 수 있는 정책의 개발과 행정에 있어서도 각 상인회와 상점가 등과 원활한 소통으로 소상공인들의 손발이 되는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되도록 모두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김갑교 국회의원 "소상공인들은 한국 경제의 싹싹함이"라며 "민간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경제 발전의 원동력 역할을 해온 700만 소상공인들의 삶에 대한민국이 웃을 수 있고



경기 여주시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6일 여주연합회 회의실에서 ‘2022년 소상공인 날’ 기념식을 진행했다.

순천대, 6개 지역 기업과 어깨동무

순천대학교 신재생에너지 분야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단과 생명산업과대학 농업경제학과가 전남 농촌융복합산업 발전과 맞춤형 지역 인재 육성, 탄소중립 등을 위한 관련 분야 지역 대표기업들과 6개 업무협약을 체결(사진)했다고 17일 밝혔다.
순천대 농업경제학과는 최근 대정기업(㈜ 순천로컬푸드, ㈜나눔바이오, ㈜파우, 흥양농조조합, 테리영농조조합 등 6개 업체와 산학 네트워크 구축 및 상호발전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순천대학교 농업경제학과는 협약을 통해 현장실습, 공동연구, 취업 연계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로컬푸드 유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먹거리 상생 협력방안을 만드는 한편 나아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교류 협력 활동을 포함, 협약을 이행·발전시키기 위해 정기 모임도 개최하기로 했다.

강진 녹색목장 노민섭씨, 후보씨수소 선발 눈길

농협중앙회 한우개량사업소 2022년 당대검정 후보씨수소 최종 선발에 강진읍 녹색목장 대표 노민섭(52)씨의 한우가 후보씨수소(KPNI738)로 선발됐다.
노 대표는 강진군 1호로 지난 2019년 보증씨수소(KPNI410)를 배출한데 이어 두 번째 보증씨수소 선발을 위한 후보씨수소(KPNI738)를 배출하게 됐다.
강진읍 노씨는 최근 한우 육종 대표농가인 녹색목장을 방문해 격려하며 군 한우농가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한우개량 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 교환하며 강진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노 대표는 건국대 축산학과를 졸업하고 29년간 한우 사육에 종사해 현재 373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현재 강진완도축협 이사에 재직중이다.
김 군수는 "관내 육종농가와 함께 지역 맞춤형 한우개량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사육기술 전파를 통해 1등급 이상 출현율을 높이며 우량송아지를 생산해 한우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상용기자 ksy@jeonmae.co.kr

청양 유성에 대표, 충남 대표 농업기술명인에

충남 청양군 남면 은자리 '선한이웃영농조합법인' 유성에(사진) 대표가 최근 열린 충남농업기술원 연구연합회 전진 대회에서 충남 대표 농업기술명인으로 선정됐다.
17일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농업기술명인은 충남농업기술원과 충남농업기술원 연구연합회가 창의적인 노력으로 도내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한 분야별 최고 농업인에게 주어지는 호칭이다.
유 대표는 지난 2008년 귀농해 제과제빵 기술을 활용해 농촌에 어려운 이웃에게 빵

원주시, 22일부터 시장실 개방... 시민 체감 행정 실현

강원 원주시는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시장실을 개방한다고 17일 밝혔다.
원수(사진) 시장의 주요 공약인 '시장실 1층 이관'이 21일 완료돼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시는 1층 로비에 '시의 미래'에 대한 바람을 적을 수 있는 게시판을 일주일간 설치, 시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오후 12시 20분부터 1시까지 원주시합창단의 '찾아가는 로비 음악회'가 열린다.
원 시장은 "시장실이 1층 민원 앞 이전은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민선 8기의 강한 의지"라며 "많은 시민이 시장실을 둘러보고 시의 밝은 미래를 위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주/ 김광태기자 kkt@jeonmae.co.kr

포토뉴스



경북농협·농협중앙회 안동시지부, 농촌일손돕기 실시
경북농협과 농협중앙회 안동시지부는 수확철을 맞아 17일 안동시 남후면 일대에서 농촌일손돕기 및 영농패기를 수거 캠페인을 실시했다.
경북/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세미운동청 청양군지회, 고추장 나눔 봉사활동
세미운동청 충남 청양군지회는 최근 비봉면 복지회관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고추장 나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청양/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철원군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 협력 회견보고회
강원 철원군은 최근 군청사 상형실에서 신인철 부군수 주관으로 군 통합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협력 회견보고회를 개최했다.
철원/ 지명희기자 jmb123@jeonmae.co.kr



순천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
전남 순천시는 전남 순천시국가정원 일제성공관에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서길원 대기자



강원 고성군, NCMN 5K운동본부로부터 성금 전달 받아
NCMN 5K운동본부는 최근 복지 사각지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시명의 성금 400만 원을 함흥동 강원 고성군수에게 전달했다.
고성/ 박승호기자 shpark@jeonmae.co.kr



동해시의회, 목호동 소방·방재 도로 민원현장 답사
강원 동해시의회는 최근 관내 목호동 소방·방재 도로 주민민원 발생현장, 논골담길 현장을 답사해 주민의견을 청취했다.
동해/ 이교형기자 leekh@jeonmae.co.kr



이종원 평택시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방안 간담회
이종원 경기 평택시의원은 최근 시의회 간담회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평택/ 김원복기자 kimwb@jeonmae.co.kr



정선군 신동읍 태경산업, 불우이웃돕기성금 기탁
강원 정선군 신동읍 태경산업(주) 예미공장은 17일 신동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불우이웃 돕기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
정선/ 최명희기자 jhchoi@jeonmae.co.kr

안내렌즈삽입술, 초고도근시·난시 등 유형에 따른 선택이 중요

의학칼럼

배계중

인천 부평성모안과 대표원장



시력이 떨어지면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등으로 시력을 개선한다. 하지만 안경, 콘택트렌즈 착용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시력교정술을 고려할 수 있다. 대표적인 시력교정술에는 라식과 라섹이 있다. 시력교정술은 각각 특징점이 다르므로 개인의 시력, 안구 상태, 라이프 스타일 등에 적합한 시력교정술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레이저라식은 각막절편을 만든 후 각막 실질 부위에 레이저를 조사해 시력을 교정하는 방식이며, 스마일라식은 각막 절편을 생성하지 않고 각막 실질부위를 교정량 만큼만 분리해 내는 수술이다. 라식 계열의 수술은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지만 라섹에 비해 외부 충격에 약할 수 있다. 라섹은 각막상피를 벗겨낸 뒤 레이저를 이용해 시력을 개선한다. 외부충격에 강해 활동적인 스포츠를 즐기는 경우 적합하지만, 1~2일 정도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 회복 기간이 라섹에 비해 길다는 단점이 있다. 라식, 라섹과 같이 레이저를 이용한 수술방법은 각막 두께가 너무 얇거나 초고도근시, 난시의 경우는 수술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각막 절삭량이 많아져 부작용 우려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각막을 보존할 수 있는 안내렌즈삽입술

(ICL)이 대안이 될 수 있다.

ICL렌즈삽입술은 눈 안에 작은 렌즈를 삽입해 시력을 교정하는 수술로, 각막을 보존하기 때문에 빛반사, 안구건조증, 각막혼탁, 각막확장증 등의 발생 우려가 적다. 또한 수술 후 문제가 발생 시 렌즈를 제거하면 수술 전 상태로 회복할 수 있다. 이는 렌즈를 얼마나 정확하게 삽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렌즈가 안구 공간보다 작으면 백내장 발생률이 높아지고, 렌즈가 크면 눈 안의 원활한 방수 흐름을 막아 녹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수술 전 다양한 정밀검사를 통해 맞춤형 렌즈를 선택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때 안구 전·후면부의 전방 깊이와 볼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면 개인에게 적합한 렌즈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렌즈삽입술은 라식, 라섹이 불가능한 경우도 받을 수 있는 수술로 각막을 그대로 보존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다. 하나 단순히 수술비용 보다 임상경험이 풍부하고 기술력이 높은 의뢰자인 집도를 하는지, 철저한 장비로 철저한 사전 검진을 진행하는지, 체계적인 사후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pinion 전국매일신문은 독자여러분의 투고, 사진, 민평 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소 (우 1332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22(수진동, 예능빌딩) 전화 1588-5762 / 팩스 031-755-4380 / 홈페이지 www.jeonmae.co.kr 외부 필진의 칼럼, 기고, 독자의견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악성사기 범죄 예방이 최선

독자투고

김철우

경남 하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자본·갭투자 등 보증금 편취, 강릉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하는 전세사기, 허위 입원·과다진료 등 보험금편취,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보험사기, 기획 부당산, 중고차 거래, 취업사기 등 5인 이상 조직적 영업형태의 반복적 사기투자·영업·거래사기 등 기타 조직적 사기, 특정법 제3조 제1항 1호(50억 이상) 및 제2호(5억 이상)의 특정법상 사기이며, 이러한 악성사기 범죄들은 역할 분담으로 사전 치밀한 계획과 전문적인 조직성과 불특정 다수의 범행대상에게 반복적으로 기망하는 반복성, 금융기법과 통신수단을 활용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광역화·초국경화와 물리적·시간적 한계를 넘는 확장성, 경제적 정신적 피해발생과 피해회복이 어려운 중대성 등의 특징을 갖고 있어 전 국민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악성 사기범죄는 경제적 살인에 비유될 만큼 서민들의 금전 피해 등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경제생활의 심각한 위협 및 사회 불신을 조장하는 대표적인 서민경제 침해 범죄로 나날이 진화되고 있는 추세로서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강력한 근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경남도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경남의 경우 전화금융사기는 1056건, 가상자산 유사수신 사기는 50건, 보험사기는 156건, 투자·영업·거래관계의 조직적 사기와 다역사기인 특정법위반 사기는 88건으로 매년 10%이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첨단 기술 발달과 더불어 복잡해지는 사회구조의 변화와 새로운 거래양상에도 수많은 신종수법이 출현하고 그 수법 또한 업그레이드되면서 악성 사기범죄는 줄지 않고 서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사기범죄의 양상과 변화추세의 면밀한 분석으로 서민 경제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7대 사기범죄를 '악성사기'로 선정, 전 부서를 망라한 전담 T/F팀과 수사팀을 구성, 금년 말까지 기간을 연장해 첩보수집 등 다양 방법으로 집중 단속으로 적절할 계획이다. 또한 수사 전 단계에 걸쳐 추가 피해 차단 및 피해회복에 집중해 물수·추정 보전 등 경제적 처분금지 외에도 금융기관 대상 지급정지 등 임의적 처분금지 조치로 범죄수익추적 활동을 강화해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기여하는 한편 서민을 눈물짓게 하는 악성 사기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국민들도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면서 경각심과 관심을 갖고 범죄수법과 대처요령을 숙지해 범죄피해가 의심되면 적극적인 신고로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예방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악성사기의 유형을 보면 금융·통신사기, 조직·상습 사기, 다역 피해사기의 3대 분야의 7대 세부 과제인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뭍뭍피싱 등 피싱 범죄인 전기통신금융사기, 각종 사이트에서 물건을 팔겠다고 속이고 다수로부터 대금을 편취하는 사이버사기, 원금 초과 수익 보장, 허위회원 모집 가입비 등을 편취하는 가상자산 유사수신 사기 등, 무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만나다

www.jeonmae.co.kr

발행·편집·인쇄·회장 박종문 사장 박종필 편집국장 이일영

대표전화 1588-5762

정 치 부 031-755-5600 지 방 부 031-755-5622
경 제 부 031-752-0256 광고문의 070-4325-3668
사 회 부 031-755-3484 FAX 031-758-4360

전국취재본부

서울본부 02-749-0922 세종본부 044-865-8000
인천본부 032-751-1478 강원본부 033-251-4866
대구본부 053-471-1111 충남본부 041-668-3722
광주본부 062-361-0145 충북본부 043-255-8877
경기북부본부 031-967-1616 제주본부 064-723-1950
경남본부 055-761-7882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22(수진동, 예능빌딩)

1997년 6월24일 창간(등록번호 가-43호(일간))
본사주소: 한국 요양보호사 조선문보
구독료: 월 1만8,000원 / 1부 700원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풍산개 '과양' 논란

데스크칼럼

최재혁

지방부국장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실 과다하다"라고 반박했다.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령기록관 소관으로 행정안전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 간 협의 중인데 입안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반박하는 건 전적으로 문대통령 측관단"이라고 반박하고 나서 전, 현직 대통령 간 '풍산개' 공방전이 벌어졌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 때 북한 김정은으로부터 풍산개 한쌍을 선물로 받았다. 새끼를 7마리를 낳아 6마리를 분양하고 '곰이'와 '송강' 등 3마리를 기르고 있었다.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인 3월 28일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 문대통령이 개에 대해 물었다. 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자에게 물을 때는 자기가 퇴임 후 사저로 데려가 키우고 싶은 생각이 있어 의견을 따져 보았다고.이에윤석열 당선인은 배려 차원에서 "반려견은 키우면 사람이 정도 들고 계속 키우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화답했다.

문대통령은 "나도 데려가 키우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문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인 지난 5월 9일 대통령기록관과 맺은 협약의 후속 조치인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통령기록관은 동식물을 관리·사육할 시설을 갖추지 않은 데다 동물복지까지 고려해 당시 문 전 대통령에게 풍산개를 맡기는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사육 및 관리에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돈이 지급되지 않아왔다. 이와 관련해 여권은 문 전 대통령의 처신을 꼬집고 있고, 야권은 정부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사료값이 아까웠다", 김기현 의원은 "대북 평화 쇼를 위해 써먹다가 용도가 폐기되자 과잉한 것",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직 대통령은 키우는 게도 나라가 관리해주냐"고 비꼬았다.

최근 들어 뜻밖에 두세 마리 하얀 풍산개가 화제가 됐다. 여기서의 풍산개는 지난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권력자 김정은에게서 받은 선물이다. 그걸 손수 키우겠다고 5월 양산 사저로 데리고 간 문 전대통령이었다. 그런데 얼마 전 '못 키우겠다'며 나라에 반납했다는 얘기가 사람들 입에 유행하게 오르내린 거다.

한쪽에선 월 200만원의 양육비를 주기로 한 정부가 안 주고 있으니 반납하는 게 맞다고 한다. 다른 한쪽은 좋아서 데려가놓고 사료값까지 나왔던 데다, 나라에서 키우면 동물복지도 사육환경도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이에 어떤 이가 평하길 "좁스럽고 민망하다"고 했다. 언젠가 들어본 적 없는 조롱이다. 또 다른 이는 "아비한 언론플레어로 전직 대통령을 욕해나"고 분개한다.

반면 민주당 정청래·윤건영 의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현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주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며, 윤석열 정부의 잘못 때문이라고 책임을 졌다. 문 전 대통령 측의 주장대로 애초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정부의 잘못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눈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액의 연금을 받는 문 전 대통령이 돈 때문에 풍산개를 반납한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7기 중 17기쯤 돌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나라에서 돈 때문에 파양하는 사람이 많다. "왜 우리는 여기에 있어야만 하나요. 무슨 잘못을 했다고..." 풍산개들은 자신들을 돌려보낸 문 전 대통령과 지원에 소극적인 정부를 향해 이렇게 호소하고 있을지 모른다. 곰이가 낳은 새끼 '다문'은 당분간 양산에서 지낸다고 한다. 어미가 얼마나 그 리울까. 매월 들어가는 개 2마리 사육비 20만 원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해주지 않으니 정부에 반항했다는 것. 정부나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정부가 개 사육비 안 준다... 사람이 미우면 개까지 싫어지는지 개새끼들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사사건건 싸움질인 정치판에서 개라고 예외는 아닌 모양이다. 사실상의 과양으로 반려견을 키우는 많은 국민을 더 착잡하게 하지 않길 바란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 부터 선물 받아 키우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정부에 반납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 뒤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곰이와 송강을 선물 받았다. 퇴임 후에 이 두 마리에 곰이가 낳은 새끼 7마리 가운데 '다문'까지 양산으로 데려와 키우다가 이번에 정부에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이자, 달러, 물가 등 3고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이런 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풍산개 두 마리를 키우는 관리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주지 않는다고 대통령실과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문 대통령 측은 "대통령 기록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풍산개 두 마리 관리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했다면 후속 조치가

전국매일신문 캠페인

함께 해요

소방차 전용구역 비워주세요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정차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차 전용구역엔 주차, 물건 적치금지

위반 1차 시 과태료 50만원

위반 2차 이상 과태료 100만원

농촌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농촌이 살아야... 대한민국의 삽니다.

농업이 존엄성은 생명이 되므로 농업이 더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농업은 농촌의 생명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구 농업협동조합

- 본 점 : 032-746-0989
- 경제사업소 : 032-746-2456
- 화수지점 : 032-762-9274
- 용유지점 : 032-746-3008
- 하인전지점 : 032-763-4602
- 신 흥 지 점 : 032-761-2381
- 공왕신도시지점 : 032-752-1414
- 하늘도시지점 : 032-746-1441
- 〈하나로마트〉
- 본 점 : 032-746-2090
- 하늘도시점 : 032-752-9350

생활안정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광고효과를 누리세요

전국매일신문

광고문의 1588-5762 FAX: (031) 755-5633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들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등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의거 공고인 이 임의 개정하게 되며 추가 분묘가 나오실 분 공고로 갈음합니다.

- 분묘소재지 및 분묘기수
 - 전남 보성군 미력면 송재로 539
 - 분묘 기수 = 총 1기
- 개장사유 : 소유권보존
- 개장방법
 - 가. 유연 분묘 : 연고자와 합의 개장
 - 나. 무연 분묘 : 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자 임의 개장
- 개장후 인차 장소
 - 가. 유연 분묘 : 분묘의 연고자가 자유 장소이장 (묘지 설치가능 지역)
 - 나. 무연 분묘 : 충북 영동군 삼천면 옥계폭포길 126 (고당사 043-742-5965)
-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 인차기간 : 인차후 10년
- 신 고 처 : 전남 보성군 미력면 송재로 539
- 대행업체 : (주) 한국 정묘 080-402-4444, hp = 010.2998.1444
- 신고요령 : 신고자 (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사진촬영)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 (족보, 제적등본, 사실 확인 서류, 인감증명 등) 을 구 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2022년 11월 18일
위 공고인 : 이 학 수 인

생애 속 교훈 안전지킴이
운전 시에는 반드시 안전벨트매기!

안전벨트 착용은 모두를 위한 생명이 안전입니다.

교통안전공단 자료에 의하면 31년간(2015-2020년) 안전벨트 착용률은 86.49%, 종래에는 97.2%에 미치지 못했.

안전벨트는 생명에 대한 약속을 통해 모두가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안전벨트는 안전입니다.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
POWERFUL DAEGU

○
대구 미래 50년을 위한 혁신
**대구도시공사가
대구도시개발공사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